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유아 동반 가족 대상 숲 체험의 동기와 경험에 대한 교육적 이해

- 유아숲체험원을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전공

이 혜 진

유아 동반 가족 대상 숲 체험의 동기와 경험에 대한 교육적 이해

- 유아숲체험원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윤 순 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전공
이 혜 진

이혜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엄성우 (인)

부위원장 윤순진 (인)

위 원 장미정 (인)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유아를 동반한 가족 대상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숲 체험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의미 있었던 숲 체험 내용 요소를 파악하고 가족 숲 체험이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교육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부모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유아 참여자와의 면접과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보조적으로 병행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부모 참여자들은 그들의 유년시절의 긍정적인 자연 경험과 현재의 자녀교육관이 내재적 동기로 작용하여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부모 참여자들이 가족 숲 체험 과정에서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는 숲 체험 내용의 요소는 부모-자녀 간에 질 높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활동과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자연 체험, 혹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반영하는 활동이다. 가족 숲 체험의 교육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 부모, 가족 전체로 범주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 유아 참여자들은 숲 체험을 통해 자연친화적 태도가 향상되었고, 자유와 놀이를 즐겼으며,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졌다. 부모 참여자들 역시 자연친화적 태도가 향상되었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 관계를 자각하였으며, 양육효능감이 향상되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숲 체험을 통해 공통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더욱 화목한 가정으로 발전했으며 숲 체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가족들이 다시 숲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새로운 동기가 되어 선순환하였다.

종합하면, 유아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숲 체험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생애주기에서 요구하는 발달과업을 성취하도록 돕고 부모와 유아의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향상시키며 세대 간에 자연을 즐기는 문화 전달 현상으로 교육적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가족 숲 체험은 현재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세대가 자연을 찾고 즐기고자 하는 동기의 근원이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유아를 포함한 미래세대가 아름다운 자연에서 놀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숲과 유아숲체험원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지역 주민들이 숲의 내재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생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해야 한다. 더불어 자녀 교육 여건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제한적인 정보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가족 숲 체험의 참여 동기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주요어 : 숲 체험 프로그램, 가족 숲 체험, 유아숲체험원, 환경교육, 미래세대, 질적 사례 연구

학 번 : 2020-27973

목 차

제 1 장 서론 ····· 0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1

제 2 절 연구문제 ····· 04

제 3 절 연구 방법 ····· 05

1. 질적 사례 연구 ····· 05

2. 연구 과정 ····· 07

제 2 장 이론적 탐색 ····· 18

제 1 절 자연-인간 관계의 이해 ····· 18

제 2 절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과 환경교육 ····· 21

1. 사회환경교육으로서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 ····· 21

2. 체험으로서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 ····· 23

제 3 절 숲 체험 교육 ····· 26

1. 유아기의 숲 체험 ····· 26

2. 성인기의 숲 체험 ····· 35

제 4 절 부모-유아 관계의 이해 ····· 36

1. 가족의 개념과 기능 ····· 36

2. 부모의 역할 ····· 38

제 3 장 가족 숲 체험의 동기 ····· 43

제 1 절 과거: 유년시절의 자연 경험 ····· 43

1. 정소라: “어릴 때 자연에서 좋았던 기억으로” ····· 43

2. 이선호: 제주에서의 기억,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해주려고” ····· 44

3. 채나현: “부모님께 진 빚은 자식한테 내리로” ····· 45

4. 김다은: 농촌에서 자란 부부의 “자연스러운 선택” ····· 46

제 2 절 현재: 자녀교육관 ····· 48

1. 정소라: “아이들을 위해서 숲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48

2. 이선호: “선행학습보다는 자연 체험같이 중요한 것들을” 50
3. 채나현: “점수화 되지 않은 교육” ····· 51
4. 김다은: “주말에 이렇게 사는 게 삶의 목적” ····· 52
제 3 절 소결 ····· 54

제 4 장 가족 숲 체험의 의미 ····· 58
제 1 절 의미 있는 가족 숲 체험의 내용 요소 ····· 58
제 2 절 가족 숲 체험의 교육적 함의 ····· 64
1. 유아가 숲으로부터 얻는 교육적 의미 ····· 64
2. 부모가 숲으로부터 얻는 교육적 의미 ····· 84
3. 가족 전체가 숲으로부터 얻는 교육적 의미:
“공통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화목한 가정으로 ····· 93
제 3 절 소결 ····· 96

제 5 장 결론 및 논의 ····· 103
제 1 절 연구 요약 ····· 103
제 2 절 논의 ····· 106

참고문헌 ····· 112
부록 ····· 121
Abstract ····· 126

표 목 차

[표 1] 부모 참여자용 심층 면접 질문 내용 ····· 09
[표 2] 부모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 14
[표 3] 유아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 15
[표 4]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발달과업 ····· 38

그 림 목 차

[그림 1] 산성공원 내 '우리꽃동산 유아숲체험원' ····· 16
[그림 2] 판교공원 내 '판교공원 유아숲체험원' ····· 16
[그림 3] 부모 참여자의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 참여 동기 ·· 57
[그림 4] 박주가리 ····· 59
[그림 5] 박주가리씨 날리는 장면 ····· 59
[그림 6] 산성공원 유아숲체험원의 밧줄다리 ····· 61
[그림 7] 한강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쌍둥이 유아 참여자 ·· 70
[그림 8] 유아 참여자 한수연의 그림 ····· 71
[그림 9] 유아 참여자 이준우의 그림 ····· 73
[그림 10] 유아 참여자 김하은의 그림 ····· 74
[그림 11] 유아 참여자 민우현(쌍둥이 형)의 그림 ····· 75
[그림 12] 유아 참여자 민수현(쌍둥이 동생)의 그림 ····· 76
[그림 13]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가족 미션 활동지 ·· 82
[그림 14] 가족 숲 체험의 참여 과정 ····· 101
[그림 15] 가족 내 세대 간 자연 체험의 문화 전달 ····· 102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숲은 인류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장소였다. 오랜 시간 동안 숲은 대기를 정화하고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등의 공익적인 기능을 해왔다. 특히 화석연료와 화학비료의 사용 이전 시대에서 숲에서 구할 수 있는 땔감은 난방과 취사에 있어 필수적이었으며 퇴비의 원료가 되는 시초는 우리나라 서민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윤순진, 2017).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산업화의 가속화에 따라 숲이 있던 자리에는 도로, 건물, 항만 등이 들어섰고 숲은 더 이상 인간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 개방성으로 인해 인간 스스로 자신과 숲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숲의 기능은 점차 등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숲의 면적은 대규모로 축소되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의 기능을 하는 숲의 감소와 훼손은 곧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기후위기 심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자연이 인간의 삶과 분리됨에 따라 인간은 점점 더 자연과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곽노의와 이신영, 2015). 특히 현대 사회의 유아들은 우리가 유년시절에 자연에서 시간을 보낸 것만큼 자연에서 뛰어 놀지 않는다.[1] '아동의 놀 권리 국제연합' 회장이자 '자연스러운 배움을 위한 단체'의 사무총장인 무어는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지 않게 된 원인을 놀기에 부적합한 실외 공간, 1950년대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가정용 에어컨, 아이들을 집 근처에만 두려고 하는 부모들, 실외 수업을 허

1) 이 논문에서 의미하는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이다.

용하지 않는 정부의 수업 방침, 대다수 가정에서 보이는 지나치게 통제된 생활양식 등으로 꼽았다(Moore, 1997; Louv, 2008). 자연과 접하는 기회가 줄어듦과 동시에 영・유아기부터 TV, 컴퓨터, 게임기와 같은 전자매체, 상품화된 놀이상품에 자주 노출된 아이들은 신체적 활동성은 물론 집중력과 상상력, 호기심,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능력 등을 스트레스, 충동성, 우울, 불안, 고립 등의 증상들과 맞바꾸고 말았다(곽노의와 이신영, 2015).

제6차 산림기본계획(산림청,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숲은 연간 174조 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산림은 지역마다 아름다운 경관, 고유한 특산물, 다양한 체험요소 등을 보유하고 있어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에 유리하며, 수원함양・대기 정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만 연간 126조 원이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노력으로 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수목원, 치유의 숲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을 꾸준히 조성하였고 덕분에 2008년, 817개소였던 도시숲이 2016년에는 3,348개로 증가했다. 수혜인구 역시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급증했는데 특히 2008년에 1만 3,000명이었던 유아숲체험원의 참여 인원은 2016년에 108만 3,000명으로 증가하였다(산림청, 2018). 이러한 현상은 숲에 유익한 가치가 충분히 내재해 있으며 산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구현에 따라 앞으로도 숲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같은 맥락에서 1900년대 중반 북유럽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숲유치원의 교육적 효과가 최근 한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숲유치원(Waldkindergarten 또는 Forest Kindergarten)은 일반적으로 만 3세에서 만 6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야외 학교이다. 숲유치원에서는 계절이나 날씨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하루종일 숲 속에서 활동한다. 또한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들만 놀이에 사용하며 상상 놀이를 전개하고, 창의력과 땅에 대한 높은 감성을 키운다(Amanda Kane & Judy Kane, 2011).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에서 이러한 유아기 숲 체험의 교육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있다. 2012년 7월부터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

어 운영되고 있다(산림청, 20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유아숲체험원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다. 유아숲체험원은 지자체별로 유아숲지도사를 중심으로 개인과 단체에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2] 이 가운데 체험 대상이 유아 개인일 경우에는 해당 연령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호자를 동반한 가족 숲 프로그램이 대다수이다. 숲 체험에서 유아와 부모 간의 상호작용은 유아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흙이나 물, 나무, 꽃, 풀, 새 등의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으로도 유아와 부모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재로 충분하다(강영식, 2018).

숲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인간 공동체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장소이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이제 현대인들은 숲에서 땔감을 구하는 대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청이 국민의 산림복지 및 교육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숲 체험 프로그램 가운데 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숲 체험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유아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 동반 가족 대상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가족 숲 체험의 교육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유아와 그 부모의 내적·외적 성장 및 환경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매개로서 숲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인간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놓여 있는 유아와 그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숲 체험을 통해 얻는 교육적 효과를 밝힘으로써 숲 체험 교육 패러다임이 견고하게 구축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유아숲지도사란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산림교육법 제2조제2호).

제 2 절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유아 동반 가족 대상의 숲 체험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참여자가 유아 동반 가족 대상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이 연구의 사례인 유아숲체험원의 유아 동반 가족 대상의 숲 체험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센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녹지과(또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숲을 방문한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닌, 부모의 사전 정보 수집부터 시작하여 유목적성의 계획이 존재하는 것이다. 동기(motive)의 어원은 라틴어의 ‘movere(움직인다)’로,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동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끈기와 강도를 결정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현성용 외, 2009: 284). 따라서 참여자들이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의 작용 배경은 현재의 숲 체험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둘째, 참여자가 경험한 의미 있는 가족 숲 체험의 내용 요소는 무엇인가?

유아숲체험원에서 제공하는 숲 체험 프로그램은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에 의해 운영된다. 여러 숲 체험 활동 가운데 참여자가 경험한 ‘의미 있는’ 숲 체험 내용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유아 가족 단위의 숲 체험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참여자들이 숲의 내재적 가치를 발견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가족 숲 체험이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자는 가족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토대로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가족 숲 체험으로부터 얻는 개인적인 의미를 포착함으로써 가족 숲 체험의 교육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 방법

1. 질적 사례 연구

이 연구는 유아기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한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했는지, 부모와 유아에게 숲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숲으로부터 얻은 가치와 교육적 함의를 밝히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질적 연구의 사례 연구 방법을 채택했다.

질적 연구는 사회적 이슈 또는 인간 문제를 탐색하는 독특한 방법론적 연구 전통들에 기반하여 이해하는 연구 과정이다. 연구자는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구성하고, 언어를 분석하며, 정보제공자들의 구체적인 시각들을 보고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한다(Creswell, 2007). 또한 질적 연구는 연구 문제 및 현상, 대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낯선 상태에서 다시 탐색하고자 할 때, 현상 이면의 심층적 구조와 과정을 밝히고자 할 때, 우리가 아닌 그들의 의미가 궁금할 때, 현상의 의미를 보다 통합적이고 체험적으로 공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조용환, 1999).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아 동반 가족 대상의 숲 체험 역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숲 체험의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그들의 체험 동기와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질적 연구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 중 사례 연구 방법은 ‘경계를 가진 체계(bounded system)’의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그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접근의 하나로서,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case) 또는 경계를 가진 여러 체계들(cases)을 탐색한다. 또한 관찰, 면접, 시청각 자료, 문서와 보고서 등의 다양한 정보의 원천들을 포함하며,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에 대한 구체적 서술, 그리고 사례에 기반한 연구 주제를 심층적으로 제시한다(Creswell, 2007). 최근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를 동반한 가족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숲체험원에서의 유아 동반 가족 대상 숲 체험’의 교육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례 연구’가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에서의 유아 동반 가족 대상 숲 체험’이라는 경계를 설정한 이후에는 이 경계 안에서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였으며 심층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면접은 제보자의 행동, 감정,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해석처럼 관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 필수적이다. 또한 반복이 불가능한 과거의 사건과 이 사건이 개인이나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때도 유용하다(Patton, 1990). 따라서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참여 동기와 숲 체험 당시의 상황, 숲 체험 경험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1:1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과 전사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대상자의 구술 내용과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그들의 감정 표현과 해석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며 신중하게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여러 자료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나타내도록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해서 읽고 분석하며 의미를 찾아 나갔다.

2. 연구 과정

가. 연구의 탐색

유아기 숲 체험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은 연구자가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시작하였다. 연구자가 관찰한 바로 유아들은 실내보다 실외에서 더욱 긍정적인 정서와 또래 간 상호작용을 나타내었고, 실내의 구조화된 플라스틱 놀잇감보다 실외의 비구조적인 자연물로 놀이를 하면서 스스로 창의적인 놀이를 만들어 나갔다. 또한 유아들은 풀, 꽃, 개미, 새와 같은 여러 생명체를 자주 접할수록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와 행동을 보였는데 이러한 현장 경험들은 연구자가 유아교육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자연' 속에서 찾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는 유럽의 숲유치원에 대한 서적을 탐독하며 유아기 숲 체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숲 체험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알게 되었고 직접 그곳을 방문하여 환경구성 상태와 유아들의 놀이 장면을 관찰했다. 연구자는 울창한 숲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자연물 놀이를 통해 내면의 욕구를 표출하는 유아들을 관찰하며 숲의 교육적 효과를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유아와 그 부모들의 상호작용이 매우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의 생활 주변에서 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연구자는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도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학원으로 내몰리는 유아들을 보며 유치원에서 주어지는 실외놀이 시간을 제외하면 과연 이들에게 자연에서 놀 시간은 얼마만큼 허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유아 숲 체험 교육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 문헌 연구

이 연구를 실행하기 전 유아 동반 가족 대상 숲 체험의 동기와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연주의 교육’, ‘자연친화교육’, ‘유아 환경교육’ ‘숲 교육’ ‘유아 숲 체험’, ‘숲유치원’, ‘가족 참여’, ‘부모교육’ 등을 검색어로 문헌을 탐색하였다. 교육철학과 환경교육을 포함하여 유아교육 분야 및 사회심리학 영역의 문헌도 함께 탐독하였으며 산림청 주도의 유아숲체험원 조성 배경 및 개념, 관련법을 조사하여 연구의 기초가 되는 내용 전반을 살펴보았다.

자연주의 교육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 탐독은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숲 체험과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는 숲 체험이 유아기와 성인기에 각각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족과 유아-부모 간의 특수한 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함으로써 가족의 사회적 기능과 유아기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문헌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은 이후 심층 면접 자료들의 분석과 해석에 필요한 맥락과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다. 심층 면접

1) 연구 대상

가) 부모 참여자

이 연구의 주요 구술자는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유아의 부모이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부모들은 주말에 자녀와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성을 갖고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했으며 숲 체험에 참여하는 동시에 체험 전반에 걸쳐 자녀의 모습을 관찰한 이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질문에 대한 생각과 경험, 관찰한 바를 가장 구체적으로 구술해 줄 수 있는 행위자들은 유아의 부모이기에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 부모와의 면접은 1:1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초기에는 연구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진행하였으나 COVID-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였다. 부모 참여자와의 면접은 회당 60분 내외로 2회 진행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유아 참여자와의 면접이 있는 날에 이전 면접 내용과 관련된 추가 질문을 하였다. 또한 면접 분석과정에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였다. 심층 면접은 연구 질문과 관련된 반 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연구자가 사전에 개방형 질문지를 준비하였으며 연구의 흐름에 따라 관련 질문을 추가해 나가거나 기존 질문을 수정하는 등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표 1>은 연구 문제에 따라 구분한 면접 질문 내용이다. 면접 시에는 자연스러운 면접의 흐름을 위해 면접 질문의 내용을 재배치하여 순서화한 면접 안내서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면접 안내서 역시 연구 참여자의 구술 내용에 따라 순서나 내용이 수정되었다.

<표 1> 부모 참여자용 심층 면접 질문 내용

연구 문제	심층 면접 질문 내용 -부모용-
1. 유아 동반 가족 대상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어떻게 숲 체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까? ●자녀와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의 숲 체험 이전에 자연에서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와 함께 숲 체험 외 다른 형태의 활동에도 참여하십니까?(가족들과 여가 활동을 많이 하십니까?) ●평소 자녀의 하루일과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교육에 대한 주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유아와 부모가 경험한 의미있는 가족 숲 체험 내용 요소는 무엇인가?	●유아숲체험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의 일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가족 숲 체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족 숲 체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숲 프로그램 전후로 같은 장소에서 가족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십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족 숲 체험 중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체험 내용이나 경험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체험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경험은 당신에게 어땠습니까?
3. 가족 숲 체험이 부모와 유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연구 참여자가 1회차 경험만 있을 경우: 앞으로도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직접 자녀와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니,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숲 체험에 있어서 자연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교육내용과 자연에 대한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무엇에 더 만족감을 느끼시나요? ●가족 숲 체험을 통해 본인이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숲 체험을 통해 자녀가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가족 숲 체험을 통해 본인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면 무엇입니까? ●가족 숲 체험을 통해 본인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면 무엇입니까?

나) 유아 참여자

유아숲체험원에서 숲 체험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유아를 설정한 것을 참고하여 연구자는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을 추가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유아기는 단어의 획득이나 문법의 숙달로 인해 영아기와 비교해서는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고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언어 역시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화된 언어로 발달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갖는다(정옥분, 2018). 또한 6세 정도의 유아는 기억을 인출할 때 자기 스스로 인출전략을 이용하지 못하므로(Pressley, Levin, 1980; 정옥분, 2018 재인용) 한 달 ~ 1년 전의 숲 체험 경험을 기억하고 구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 유아들은 숲 체험의 교육적 수혜자이지만, 이 연구의 주요 구술자는 아니다.

연구자는 유아와의 면접 시, 유아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가 익숙하게 느끼는 공간에서 산책을 하거나 자연물 놀이를 하는 가운데 비형식적인 면접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면접은 유아숲체험원, 공원, 모래놀이터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와 유아가 1:1로 놀이를 하며 자연에 대한 유아의 태도를 관찰하였다. 두 번째 면접은 유아숲체험원에서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상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이 과정을 통해 유아가 숲 체험을 하며 인상적이였던 경험과 숲에서 얻은 지식, 숲에 대한 태도 등을 알고자 했다. 연구자가 준비한 미술 재료로는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물감이었으며, 유아들의 개인적인 선호나 연령적 특성으로 인한 집중 시간에 따라 쓰이는 재료가 각자 다를 수 있음을 전제했다. 유아 면접은 1회당 30분 내외로 총 2회 진행하였으며 부모의 요구와 개별 유아의 특성에 따라 1회기 면접과 2회기 면접을 각각 다른 날 진행하거나 1회기와 2회기 사이에 쉬는 시간을 두고 하루 안에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유아나 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는 부모와 동행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2) 참여자 선정 준거

가) 부모 참여자

이 연구는 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 모델이 '부모'라는 관점에서 유아 동반 가족이란 용어의 의미를 '유아를 동반한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 한정시켜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 유아의 가족에 친인척이나 조부모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의 부모 참여자는 자녀와 함께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던 아버지 혹은 어머니 중 자발적으로 면접에 참여 의지를 밝힌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나) 유아 참여자

이 연구의 유아 참여자는 부모 참여자의 자녀이면서 각 지자체의 녹지과 또는 공원녹지과에서 숲 체험의 참여 대상으로 모집한 만 3세~만 5세의 유아로 하되[3]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비교적 자유롭게 그림과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48개월 이상의 유아로 선정한다.

다) 프로그램 참여 횟수

연구 참여자는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 동반 가족 대상 숲 체험 프로그램에 1회 이상 ~ 3회 이하로 참여한 두 가족과 10회 이상 참여한 두 가족으로 선정한다. 1회 이상 ~ 3회 이하로 참여한 가족은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시작 단계에 속하며 숲에 대한 그들의 초기 평가가 앞으로의 지속적인 숲 체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구 참여자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10회 이상 참여

3) 유아의 연령인 만 3세～만 5세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이 5세～7세를 의미한다.

한 가족은 최소한 1년 이상 숲 체험에 꾸준하게 참여한 가족이다. 지속적으로 숲 체험에 참여한 가족들은 숲에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알고 있고 그동안의 숲 체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울러 숲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횟수에 따라, 즉 장기 참여자와 단기 참여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라) 지역

2021년 2월 3일 기준으로 342개에 달하는 전국의 유아숲체험원 가운데 수도권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은 146개(산림청, 2021)로 전체 유아숲체험원의 약 42%를 차지한다. 유아숲체험원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유는 수도권의 인구밀도가 높고, 산림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한 대도시의 유아들에게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자는 유아숲체험원의 설립 취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립 현황 자료 분석과 함께 오래된 유아숲체험원일수록 다년간의 교육 경험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을 것이란 예상을 기초로 연구 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였다.

3) 참여자 섭외 방법

이 연구의 참여 가족 섭외는 연구자가 유아숲체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을 직접 섭외하는 방법과 인터넷 카페에 연구 참여자 모집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으로 연구자는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https://yeyak.seoul.go.kr/)사이트와 성남산림복지(https://epark.seongnam.go.kr:10010/forest) 사이트를 통해 유아숲체험원에서 주관하는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하였다. 연구자는 자녀와 함께 서울시 A구와 경기도 B시에 있는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신청·참여하며 동일한 프

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에게 연구 참여를 제안했다. 연구자는 예비 연구 참여들과 숲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라포를 형성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연구자 본인에 대한 소개, 연구의 주제와 목적, 면접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연구를 수락한 가족들과 간단한 예비 면접을 실시하여 연구 대상자로 적합한 두 가족을 선정하였다.

직접 섭외 방식은 연구자가 참여자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숲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구 참여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가 자녀와 함께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동과 태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심층 면접 이전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와의 이전 대화를 떠올리며 연구 참여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는 잠정적 연구 참여자들에게 불필요한 질문은 자제하였고, 연구자 역시 숲 체험을 하는 동안에는 가족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 인터넷 카페에 연구의 주제 및 취지를 설명한 글을 게시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과의 채팅을 통해 참여자 선정 준거에 부합하는 가족 두 팀을 선정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정보는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2> 부모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	이름 (가명)	유아와의 관계	연령대	거주지	직업	숲 체험 프로그램 참여 횟수	최종 학력
A	정소라	어머니	30대 초반	경기도	주부	11회	대학교
B	이선호	아버지	40대 중반	경기도	회사원	1회	대학교
C	채나현	어머니	30대 중반	경기도	교사	2회	대학원
D	김다은	어머니	30대 후반	서울	교사	15회 이상	대학원

<표 3> 유아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	이름 (가명)	성별	재원 기관	기관 소속 반	월령 (면접 당시)	숲 체험 프로그램 참여 횟수	특이사항
A	한수연	여	유치원	만 4세	63개월	11회	
B	이준우	남	어린이집	만 4세	58개월	1회	
C	김하은	여	유치원	만 3세	48개월	2회	사설 숲 체험 프로그램 참여 중
D	민우현	남	어린이집	만 5세	76개월	15회 이상	쌍둥이 형제
	민수현	남	어린이집	만 5세	76개월	15회 이상	

라. 현장 조사

이 연구에서 사례(case)로 지정한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의 중심 장소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에 의해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이다. 질적 연구자는 보통 하나의 자료에 의존하기보다 면접, 관찰, 문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하며 모든 자료를 통합하는 카테고리나 주제로 조직한다(Creswell, 2009). 연구자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했던 유아숲체험원 두 곳(산성공원유아숲체험원과 판교공원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하여 그곳의 자연 환경, 놀이 환경, 동선 등을 조사하였다. 현장 조사는 이 연구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주된 연구 방법이 아닌 보조역할로 수행하였지만, 참여자들이 그들의 숲 체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연구자가 동일한 장소를 떠올리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그림 1>과 <그림 2>는 유아숲체험원 입구의 전경이다.

<그림 1> 산성공원 내 '우리꽃동산 유아숲체험원'(사진: 연구자)

<그림 2> 판교공원 내 '판교공원 유아숲체험원'(사진: 연구자)

마. 자료의 분석과 해석

자료의 분석 절차에서는 텍스트와 자료를 깊이 이해하고 여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표상하며 자료의 더 큰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Creswell, 2009). 이 연구는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에 대한 사례연구로 유아와 함께 가족 숲 체험에 참여한 부모 참여자를 중심으로 1:1 면접을 진행하며 그들의 언어를 녹음하고 이를 그대로 전사한 내용과 언어 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연구 질문과 관련된 주요 개념에 따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를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료를 줄이는 것이 연역적인 방법이 아닌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자는 미리 세워 둔 가설들을 검증하거나 자신이 수집한 자료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이론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론이든 그 이론이 생성된 맥락이 자신의 연구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Irving Seidmans, 2007). 따라서 연구자는 보다 개방된 자세로 유아 동반 가족 대상 숲 체험의 의미를 귀납적으로 찾아 나가며 자료를 분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귀납적 절차는 연구자가 전체적인 일련의 주제를 확정하기 전까지 주제와 데이터 사이를 오가는 것을 의미한다(Creswell, 2009). 연구자는 축적된 질문과 메모, 심층 면접의 전사 자료를 오가며 여러 번 읽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나 장면 등에 일정한 코드를 부여(조용환, 1999)하였다. 연구자는 하위 항목에 코드(code)를 부여하고 코딩 자료를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쳐 점차 추상적인 정보 단위로 자료를 구조화하였고, 마침내 가족 숲 체험의 교육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제 2 장 이론적 탐색

제 1 절 자연-인간 관계의 이해

과거에 인간은 자연을 인간과 상생하는 관계로 인식하며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근대의 산업혁명 이후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급속도로 황폐화되었고, 현대에 들어와서야 자연의 순기능을 인식한 이들에 의해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욕심 앞에 환경문제는 등한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자연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 왔다. 그렇다면 자연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연과 인간 또는 자연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사상적 배경은 동양과 서양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동양의 노자는 『도덕경』 제25장에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노자는 자연을 인간보다 우위에 두고, 인간이 본받아야 할 최고 규범이자, 존재의 근본 원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동등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중생실유불성(一體中生實有佛聖)’은 자연을 생명으로 파악하고, 모든 생명체는 그 이면에 불성을 실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불성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손병욱, 2001). 따라서 동양의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유기체적 자연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서양 사상을 지배해온 형이상학은 이원론적이고 관념론적이다. 이원론적 형이상학에는 반(反)자연친화적인 인간 중심주의적 태도가 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함축되어 있다. 인간만이 정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자연

의 주인으로 창조되었으며, 자연적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만큼 인간 이외의 존재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이 정한 척도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해석되고 그 가치가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이문, 2001). 또한 고대 서양의 자연관을 단순화하면 목적론적 자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론적 자연관 역시 이원론적 관점을 드러낸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감각, 영양, 번식의 기능이 있지만 신들과 같이 '이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는 구분되는 우위의 대상이라는 것이다(정병훈, 2001; 김은주와 임홍남, 2013). 서양의 인간 중심적인 사상은 근대의 데카르트에 의해 더욱 확고해졌다. 중세의 자연관에서는 개별 사물에 그 자체로서 목적도 있고 형상도 있었으며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신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데카르트에 의해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 명료해졌다. 자연계의 물체를 수학적으로 환원하는 데 모든 장애가 사라진 것이다. 데카르트의 자연관은 기술과 자연 간의 관계 개념을 크게 바꿔놓았다. 자연은 기술로써 얼마든지 관리·지배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자연관이 대두한 것이다. 자연은 데카르트의 자연관에 의하여 두려움의 대상에서 지배·개발의 대상으로 변모되었다(김일방, 2017).

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자연 파괴, 자원 고갈,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 위기에 봉착한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연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윤리나 환경 철학에서는 한동안 자연을 도구화하고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 환경문제를 야기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그 대안으로 하나의 생물 개체나 생태계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존재로서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를 가진다고 보는 생태중심주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심층생태주의에서는 자연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공생해야 하는 대상이며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보았다(정선영, 2015). 즉, 인간과 자연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전체로 보며 상호의존적인 자연관을 주장했다. 이러한 대

립적인 인식 틀의 연장에서 환경사회학에서도 인간예외주의 패러다임(Human Exemptionalism Paradigm, HEP)과 신생태주의 패러다임(New Ecological Paradigm, NEP)을 대비시키기도 했다(윤순진, 2017).

생태중심적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생태주의를 제시한 사회이론가, Bookchin(1994)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생태계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호 파괴적 관계로 치닫게 했으며, 이것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Bookchin은 심층생태주의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는 인간사회의 강한 연대감 안에서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없고 서로 협업하는 가운데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는 고도의 위계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가 자연을 지배하고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회적 위계는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동기와 수단이 되는 심리적,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Bookchin, 1994; Joseph, 2013). Bookchin의 관점에서 인간사회와 자연 세계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지배 의식을 철저하게 배제할 때만 민주적이며 공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Bookchin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인간과 자연 모두가 지배적인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민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관행으로 보았는데 국내의 윤순진(2017)의 연구도 이와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윤순진(2017)은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오염이나 훼손 없이 공동자원으로 비유되는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되었던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사회구성원들의 최저 생계와 삶의 지속성을 보장하면서도 환경의 부양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공동규제를 통해 자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들을 통해 우리는 자연 그 자체 또는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의 극단적인 두 가지 사상으로만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철저하게 구분되어 왔던 인간중심주의 - 생태중심주의라는 이분법적인 틀을 넘어서서 자연의 한정된 부양능력을 인식하고, 자연의 재생산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환경문제의 영역뿐 아니라 인간의 삶 전반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한다. 환경과 관련된 철학들은 다양한 윤리적 관점 중의 하나이다. 한 가지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정립하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윤리적 기준에서 잃는 가치가 생기고 만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태적이고,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방법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고,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논의들을 이 연구에 적용해 보면, 유아와 부모 참여자가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 숲을 찾는 행위에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연을 통해 인간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과 자연, 유아와 부모 간에 일체의 위계나 지배의식 없이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제 2 절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과 환경교육

1. 사회환경교육으로서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

환경교육은 교육의 실행 주체와 내용, 지향점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경교육을 제도권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환경교육’과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해 왔다. 이는 다시 학교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일정한 형식와 질서를 갖춘 ‘형식교육’과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짜임새를 갖춘 ‘비형식교육’,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면서 짜임새가 없는 ‘무형식교육’으로 나누어 진다(최석진 외, 2014). 학교환경교육은 학교에서 주체하지만, 사회환경교육은 정부나 지자체, 민간단체, 공공단체, 기업 등에서 주도한다. 사회환경교육은 학교 밖 주체가

중심이 되므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 한 가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지속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지만, 지역의 다양한 자연적 특색과 계절감, 현장감 면에서는 장점을 갖는다.

사회환경교육의 장점인 현장성은 장소 선정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교육의 장소는 어디인가. Cronon(1996)은 환경교육을 위해 문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낭만적인 자연환경을 선택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세계가 분리된 영역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질 수 있고, 멀리 있는 자연환경만이 가치가 있고 주변의 자연보다 멀리 있는 자연환경이 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주변에 있는 자연친화적인 곳을 환경교육의 장소로 선택하면 인간사회와 자연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지 주위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에서 전개되는 유아 숲 체험은 각 지역 자치 단체의 산림과, 녹지과, 공원과 등에서 지역의 생태적 안정성과 지역 주민들의 산림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유아숲체험원에서의 유아 숲 체험 교육은 학교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사회환경교육'이며,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비형식교육'에 해당한다. 유아 숲 체험과 같은 사회환경교육이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있고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주제 선정과 그에 적합한 자연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최석진 외, 2001). 유아숲체험원은 숲 속에 일정한 공간이 존재하고 유아의 생활과 흥미, 발달에 기반하여 주제를 선정하므로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사회환경교육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 의하면 사회환경교육에 참여하는 직업군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환경교육 대상의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한 사업은 부족하다. 특히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중 유·초·중등 대상 프로그램은 74.9%를 차지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18.8%에 그쳤다(환경부, 2020). 유아를 동반하는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이 유아에게 맞춰져 있으나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보호자로 참여한 부모 역시 숲을 거닐고 유아숲지도사의 해설을 듣는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의 교육적 수혜자는 사실상 유아뿐 아니라 성인중기의 부모를 포함하며, 이는 사회환경교육의 강화를 위해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계획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체험으로서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

환경교육에서 학습자가 자연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주로 교수·학습 방법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자연을 체험하는 것은 '주변 현장의 활용을 통한 환경교육의 동기 부여', '직접체험의 기회 제공', '환경에 대한 감수성 향상', 그리고 '자연에 대한 심미적 이해의 복원'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이영 외, 2000).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환경교육에서 지향하는 생태적 감수성과 자연에 대한 존중과 같은 정의적 측면의 발달을 돕는다(최돈형, 2005; Kahn & Ruckert, 2009; 최석진 외, 2014). 환경교육에서 자연의 체험으로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의 감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돕기 때문이다(Damagio, 1994). 환경교육의 목표에는 두 가지 측면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연환경에 대한 애착과 존중, 배려, 책임감 등 정의적 영역을 발달시키는 것이다(이성덕과 김형균, 2010). 이 중 후자의 경우 방법 면에서 환경적 지식의 습득보다는 감각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둔다. '체험' 학습 방법은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자연과 환경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받는다(임상희와 남상준, 2004).

체험으로서의 유아 숲 체험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의 정의와 목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Lucas(1972)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Lucas(1972)는 환경교육의 목적을 크게 '환경에 대한(about)' 교

육, ‘환경 안에서/으로부터(in/from)’의 교육, ‘환경을 위한(for)’ 교육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환경에 대한(about)’ 교육은 지식과 개인적 실천이 강조되고, 교사는 지식의 권위자로, 학습자는 지식의 수동적 수용자의 역할을 한다. ‘환경 안에서/으로부터(in/from)’의 교육은 생태적 경험이 강조되며, 교사는 환경 내 경험의 조직자로, 학습자는 환경 경험을 통한 능동적 학습자가 된다. ‘환경을 위한(for) 교육’은 환경문제와 쟁점, 공동체적 실천이 강조되며 교사는 공동 참여자이자 탐구자가 되며 학습자는 새로운 지식의 능동적 창조자로 볼 수 있다.

<표 4> 환경교육의 목적에 따른 범주(Lucas, 1972)

범주	환경에 관한 교육(about)	환경 안에서의 교육 (in/from/through)	환경을 위한 교육 (for)
환경교육의 강조점	환경에 ‘관한’ 지식	환경 ‘안에서의’ 활동	환경을 ‘위한’ 실천
	지식, 개인적 실천	생태적 경험	환경문제, 쟁점, 공동체적 실천
교사의 역할	지식의 권위자	환경 내에서의 경험의 조직자	공동의 참여자/ 탐구자
학습자 역할	지식의 수동적 수용자	환경 경험을 통한 능동적 학습자	새로운 지식의 능동적 창조자

체험 학습으로서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은 숲 ‘안에서’ ‘생태적 경험’을 하기에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 또한 유아와 부모는 직접적인 환경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재구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된다. 그러나 숲 체험 활동이 반드시 환경 ‘안에서의’ 교육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은 개인의 총체적인 발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식과 이해, 개념, 기능, 태도의 균형적인 발

달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교육은 개인의 각기 다른 경험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교육 계획 시 개인적인 경험(experience)의 확장, 개인적 관심(concern)의 개발, 개인적 실천(action)의 촉발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almer, 1998). 숲 체험 참여자는 유아숲지도사로부터 숲 해설을 듣는 시간 동안 자연 환경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숲 체험을 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을 '위한' 실천이 되며,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아기는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환경감수성 함양에 효과적이며(환경부, 2015), 많은 국내외 환경교육 연구에서 어린 연령층일수록 이론이나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감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환경교육 연구자들은 적절한 자연과의 접촉 시기로 '유년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일회성 체험보다는 일상적이고도 지속적인 접촉을 강조한다(Sebba, 1991).

유아기의 환경교육은 유아들이 흥미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체험 활동 방법이 효과적이다(송순옥, 2018). 유아숲체험원에서의 숲 체험은 각 지자체에 고용된 유아숲지도사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험형 교육으로 자연을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현장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숲 체험 활동은 유아의 자연에 대한 애착과 배려, 책임감을 고양시켜, 이후의 삶 전반에서 친환경적인 태도와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체험형 환경교육의 일환인 숲 체험의 효과는 다음 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 3 절 숲 체험 교육

1. 유아기의 숲 체험

가. 유아기 숲 체험의 사상적 기초

현대의 유아 자연 체험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교육사상은 18세기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일 것이다. 자연주의 교육사상은 합리성을 중시하는 이성주의와 다르게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고 전인교육을 주창한다.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의 주장에 기초한 자연주의 유아교육은 유아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타고난 본성을 개화(unfolding)하도록 돕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자연에서 찾은 교육내용으로 각 주제 중심의 통합적 교육활동을 추구하며 교육방법도 자연의 일정표에 따른다. 결국 자연주의 유아교육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교육이며 자연의 이치대로 유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힘과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고 개화하도록 기다리며 도와주는 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곽노의, 2009; 곽노의와 이신영, 2015).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는 『에밀』에서 불이나 높은 곳, 위험물 근처가 아니라면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상처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스스로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오늘날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너무 빨리 문명 속에 넣는다. 그것은 아이의 약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약하게 하는 것”[4]이라고 주장하며 유아의 요구와 자발성으로부터 시작한 활동이 아닌 성인의 요구에 의한 문명 활동을 경계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루소가 살던 당대의 시대 상황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조기교육의 열풍에 휩싸인 오늘날의 부모들에게 더욱 강하게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

4) Rousseau, J. J., 『에밀』, 김평옥 역(2020), p.63

페스탈로치(Johann Heinrich Pestalozzi, 1746~1827)는 루소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아동은 선하게 태어난다는 점과 인간발달에 있어서 아동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은 그가 집필한 『은자의 황혼』에서 "아이들이 자연으로부터 여러 가지 인상을 받는 순간부터 자연은 아이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는 것"[5]이라고 말하며 자연물을 직접 접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유아기에는 사물의 감각이 주는 인상을 직관적으로 잘 기억할 수 있으므로 관념의 형성 전에 대상을 감각 앞에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연의 사물은 인간보다 훌륭한 교사로 생각했다. 페스탈로치에 의하면 유아는 개별 성숙에 따른 호기심을 바탕으로 오감을 통해 자연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극을 탐구하고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개념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이다(곽노의, 2010).

프뢰벨(Friedrich Wilhelm August Fröbel, 1782~1852)은 독일의 교육자이자 오늘날 유아 교육 기관인 '유치원(kindergarten)'을 최초로 설립한 실천적 교육사상가이다. 그는 유아기부터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험을 강조하였고, 유아가 자연 속에서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알고 그 공통의 본질인 '통합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실제로 자연 안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삶, 그리고 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고요하게 존재하는 사물들과 함께 하는 삶은 유아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한 버팀목으로 알고 길러 주어야만 할 것이다"[6]

> "아동과 어른은 자연의 생활과 정신을 가슴과 마음으로 함께 받아들이기 위해 들과 숲으로 가야만 한다"[7]
>
> Fröbel, F. W. A.,『인간의 교육』

5) Pestalozzi, J. H., 『은자의 황혼』, 최종묵 역(1994), p.58
6) Fröbel, F. W. A., 『인간의 교육』, 이원영·방인옥 역(2005), p.71-72
7) Fröbel, F. W. A., 『인간의 교육』, 이원영·방인옥 역(2005), p. 173

프뢰벨은 영유아기에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정신에 대한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주변 자연환경의 본질을 스스로 찾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프뢰벨은 유아기의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유아기의 자연 속에서의 놀이 교육, 감성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현대의 자연주의 교육 이론의 초석이 된다.

나. 자연이 결핍된 유아들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의 자연을 중시하는 교육은 근대의 산업혁명 시기를 거쳐 현대로 들어서면서 그 의미를 점차 잃어갔다. 현대 사회는 유아의 본성과 흥미를 존중하는 교육 대신 결과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두어 왔고 그 결과 인간성 상실의 위기가 초래되었으며 유아들이 자연과 만나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곽노의, 2010). 특히 한국은 조기 교육열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유아 사교육 시장의 확대와 인공적인 놀이 상품 시장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유아의 신체적, 심리적 부작용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아가 밖에서 뛰어놀 기회와 자연과 접하는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유아의 스트레스 지수, 전자매체 중독,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소아 우울증, 소아비만 등은 급증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유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비교연구(이기숙 외, 2006)에서는 전자매체 사용에 있어서 세 국가의 유아들은 거의 매일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으며 한국 유아들의 컴퓨터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대상 유아들 중 한국은 72.6%, 일본은 61.7%, 중국은 64.6%가 정규 교육 외 조기/특기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한국 유아들의 학습지 사용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텔레비전 시청은 유아가 주어지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지적 호기심과 능동적인 탐구심 및 창의력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Singer & Singer, 1983), 학습지 형식으로 종이 위에 쓰도록 요구하는 것보다는 유

아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접적이고도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언어를 경험할 때 읽고 쓰기를 즐기게 된다(Kuball, 1995).

Louv(2008)는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에서 현대인이 자연과 멀어져 생긴 위기를 "자연결핍 장애"라고 부른다. 그는 "자연결핍 장애"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진단명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처한 문제를 알고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Louv, R., 2008).

최근 자연주의 교육과 숲 교육이 세계적으로 조명받고 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학습을 요구받으며 야외에서 놀 기회를 잃어버린 어린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반성이자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자연과 놀이가 결핍된 유아들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는 개인적으로 불행인 동시에 잠재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므로 앞으로 숲 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 유아 숲 교육의 확산

1) 유럽의 유아 숲 교육

'후리루프트슬리브(Friluftsliv: 자연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야외의 삶을 의미하는 노르웨이어)' 라고 하는 노르웨이어가 있듯이 북유럽인들은 자연 속에서 삶을 이어왔다. 북유럽 국가들의 핵심 교육 사상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부모의 모습을 관찰하며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놀이하고 체험한다는 것이다(곽노의와 이신영, 2015).

자연환경의 직접적인 경험은 스웨덴 교육의 오랜 전통이다. 1892년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 자연친화 운동인 Friluftsliv를 통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 운동의 영향으로 유아 숲 교육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스웨덴의 숲 교육은 유럽 전역과 아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숲 교육의 확산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이신영, 2015).

1950년대 중반, 덴마크의 엘라 플라타우(Ella Flautau) 여사는 자연 경험이 유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과 이웃의 자녀들을 매일 숲으로 데리고 갔다. 또한 그녀가 살던 지역에 유치원이 감소하자 3~6세를 위한 야외 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덴마크 최초의 숲유치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현재 덴마크에서 숲유치원과 일반유치원의 교육비는 동일하며 두 기관 모두 지자체의 인증을 받는다(한유미, 2010).

독일의 숲유치원은 1968년 우워줄라 수베(Ursula Sube) 여사가 비스바덴(Wiesbaden)시에 속한 숲에서 '숲 산책 그룹'을 운영하며 시작되었다(이명환, 2003). '숲 산책 그룹'은 정식 유아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 교육적 효과가 알려지면서 정식 유아교육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 후 독일의 숲유치원은 학부모,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후원과 지지 속에서 꾸준하게 발전해 왔고, 숲유치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유아들이 상당수 대기할 만큼 크게 각광받는 유치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독일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1,000개 이상의 모든 숲유치원이 정식 유아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이명환, 김은숙, 2010) 한국의 숲유치원이 누리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와 비교되는 점이다.

유럽의 숲유치원의 형태는 지역과 유아교육기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매일 숲속에서 3-4시간을 보내는 순수한 의미의 숲유치원(Waldkindergarten)[8]이 있고, 숲산책그룹(Waldwandergroup)의 경우에는 일반유치원에서 한 반을 숲산책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일주일에 3일간 오전 내 숲에서 활동을 하고 매일 오후와 남은 이틀 동안 유치원 실내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형태의 숲유치원도 있다(이명환, 2012).

8) 독일은 주로 이 순수한 자연형태의 숲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숲속 교육장소에 악천후에 잠시 대피하거나 교육자료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

북유럽에서 숲유치원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과 야외활동에 대한 강한 애착과 아동기에 대한 이미지 등 문화적 배경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숲 교육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숲 교육을 포기하는 이가 없도록 숲유치원과 일반유치원의 교육비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Borge et al., 2003; 한유미; 2010). 이러한 교육 정책은 자연을 향한 유아와 부모의 교육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오늘날의 유럽의 숲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는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의 유아 숲 교육

우리나라의 유아 숲 교육은 이명환(2003)의 '독일의 숲유치원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숲유치원이 소개된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숲유치원의 설립에 있어서 북유럽 국가들처럼 정부로부터 정식 유아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일종의 대안교육의 형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숲유치원은 특별한 시설과 설비 없이 숲이라는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행해지는 것이 주요 특징이지만 우리나라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유치원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설립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이명환, 2012). 또한 누리과정[9]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과 같은 북유럽의 전형적인 숲유치원을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일종의 대안 교육으로써 운영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고액의 교육비가 부과된다.

숲유치원 자체로는 비인가 기관으로 명명되어 어떤 지원이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신지연 외, 2016)에서 정부기관인 산림청이 숲 체험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지원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08년부터 국내 최초로 정부기

9)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한국형 숲속 유치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적합한 모델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숲에서의 안전성, 접근성, 생태성 등을 고려한 숲속 유치원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나를 만나는 숲, 2008). 산림청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교육시설인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유아숲체험원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다. 또한 동법 제20조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은 2021년 2월 3일 기준으로 342개이다. 현재도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다수의 유아숲체험원이 등록 절차 중에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가 놀이중심・유아중심의 생태 경험을 통해 주체성과 능동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장소이다. 유아숲체험원 시설은 공통적으로 야외체험학습장, 놀이시설, 대피시설, 안전시설, 휴게시설, 화장실 등이 있고, 자연 체험 위주의 공간 조성을 지향하며, 유아숲체험원의 시설을 조성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형식이나 규칙, 통제와 제한은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숲 체험 프로그램은 각 체험원에 소속된 유아숲지도사에 의해 제작되고 운영되고 있다(이문희, 2015).

라. 유아기 숲 체험의 교육적 효과

유아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학습해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지시적인 교육방법은 지양해야 하며 유아의 자율적인 학습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유아가 미리 정해진 사실들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스스로가 사회적 탐구자가 되도록 허용해야 한다(Krogh, 1995). 이러한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으로 직접적인 체험 교육, 오감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은수 외(2010)는 유아들은 자연 속에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놀이를 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진흙, 모래, 물, 나무, 들꽃 등 자연물 놀이는 유아에게 즐거움과 상상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과학과 수학의 기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대소근육의 감각적 신체 발달, 사회 정서발달, 언어 발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연물 놀이는 유아의 정서를 안정시키며 순화시키는 치료의 힘을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생활 환경과 자극적인 전자매체의 노출로 요즘의 유아들은 감각기능이 약화되거나 정서적인 불안정,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에 자연과 친숙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공동체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자연물 놀이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신은수 외, 2010).

자연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형성하는 유아기의 숲 체험은 직접적인 자연 체험 경험을 통해 유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는 자연환경을 통해 성장 과정이 변화할 수 있다(Chawla, 1988). 어린 시절에 오감을 통해 획득한 자연 체험은 자연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한다. 태도란 사람, 사물, 생각에 대한 평가인데, 어떤 태도가 발전되면 이것은 두 가지 수준, 즉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로 존재한다(Elliot Aronson et al., 2019).[10] Greenwald와 Banaji(1995)에 의하면 암묵적 태도는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반면, 명시적 태도는 최근에 일어난 일을 반영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Rudman 외 연구진(2007)은 암묵적 태도의 강력한 원천으로써 어린 시절의 경험을 주장했으며, 암묵적 태도는 명시적 태도보다 어린 시절의 발달적 사건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긍정적인 숲 체험 및 자연 경험은 유아가 성인이 된 이후 자연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0) 명시적 태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지하고 하고 있고 쉽게 알릴 수 있는 것이고, 암묵적 태도는 비자발적이고, 통제할 수 없으며, 가끔은 무의식적인 평가이다(Elliot Aronson et al., 2019).

레이첼 카슨[11]은 『센스 오브 원더』(201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어린이에게나, 어린이를 인도해야 할 어른에게나 자연을 '아는 것'은 '자연을 느끼는 것'의 절반만큼도 중요하지 않다. 자연과 관련한 사실들은, 말하자면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씨앗은 나중에 커서 지식과 지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연에서 느끼는 이런저런 감정과 인상은 그 씨앗이 터 잡아 자라날 기름진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유년시절은 그런 기름진 땅을 준비할 시간이다.
>
> Rachel L. Carson,『The Sense of Wonder』, p.65

환경 도서의 고전인『침묵의 봄』(1962)의 작가이자 환경주의자로 익숙한 그녀가 '당신의 자녀가 자연에서 놀라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라'라고 외친 이유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잊고 있는 자연의 진리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자연의 일부라는 진리 말이다. 레이첼 카슨은 아이와 함께 자연을 탐험하는 일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연에서의 경험은 아이들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근원이 될 것이므로 그저 우리의 감각으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계절과 날씨, 풍경을 즐기라고 제안한다.

국내 유아기 숲 체험의 효과에 대한 연구 역시 다차원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그 교육적 효과 역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숲 교육 전문가들은 숲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교육의 장(場)이며, 자연친화적 교육을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물리적 장소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직접적인 체험과 감각을 통하여 주변 세계를 배워나가는데, 넓게 펼쳐진 자유로운 공간은 유아의 공격성이 누적되지 못하게 하며, 움직임의 욕구를 충분히 해결해 준다(이명환과 김은숙, 2011). 숲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는 유

11) 해양생물학자로 1962년에 「침묵의 봄」을 펴내어 전 세계에 살충제 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렸다. 「센스 오브 원더」는 카슨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우먼스 홈 컴패니언>이라는 잡지에 '당신의 자녀가 자연에서 놀라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라'라는 제목으로 실은 글을 단행본으로 펴낸 것이다. -「센스 오브 원더」

아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상력과 창의성 발달을 신장하며, 또래와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관계 맺기를 통해 사회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곽노의, 2011). 자연은 유아로 하여금 직접 헤아리고, 측정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만져보게 하는 조작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이 되며, 이러한 감각 경험의 사용은 유아의 잠재적인 능력을 자연스럽게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명환, 2007). 이처럼 숲은 유아기의 적절한 발달을 촉진하는 최적의 교육 공간으로써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도 유아기의 숲 체험은 유아의 환경감수성 증진(강영식과 김용숙, 2012), 정서지능 발달(이명환과 김은숙, 2015), 친사회적 능력 발달(김은숙, 2013a), 창의력 발달(김은숙, 2013b), 스트레스 감소(이인원, 2014), 주의집중력 향상(이명환과 김은숙, 2011), 자연친화적 태도 및 과학적 탐구능력(유승우와 채영란, 2014), 놀이성과 리더십 향상(이미나와 김영애, 2016) 등 유아의 다양한 발달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숲 체험 활동일지라도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강영식, 2018), 주기적인 산림 체험 활동이 유아들의 부정적인 심리증상인 불안, 충동, 우울 증상을 완화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영, 201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유아들은 숲속에서 즐겁게 뛰어놀면서 스스로 자연과 자신의 관계를 발견하고 나름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기의 숲 체험은 자연을 존중하는 생태적 품성을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 인지, 사회성, 정서 등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다.

2. 성인기의 숲 체험

이 연구의 심층 면접 대상은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에 참여한 부모들이다. 이들은 생애주기 중 성인기에 해당하는 연령대로서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시기이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가 높고 기혼 가정 기준으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가정 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지숙 외(2014)는 성인들이 숲 여행 경험 후 스트레스 반응의 신체화, 우울, 분노 증상 등의 항목에서 유의하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참여자들은 숲 여행이 정신・신체・사회적 건강에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을 제시한 영역은 사회적 건강으로 나타났다(한지숙 외, 2014).

또한 30~40대 여성의 도시 숲 경험과 긍정심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혜영과 박소연, 2019)에 의하면 도시 숲 이용 빈도에 따른 삶의 만족은 주 2회 이상 이용할수록 주 1회 또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만족 수준이 높았다. 도시 숲 이용 시 함께하는 동행인의 경우, 삶의 만족과 우울 면에서 혼자 혹은 지인과 동반하는 것보다 가족과 동행하는 경우에 가장 긍정적이었다. 또한 도시 숲의 활용 측면에서는 정자, 벤치를 활용하는 단순한 공간 활용에 비해 등산, 산책, 산림욕, 경관 감상 등의 자연 체험과 여러 이용 활동을 동시에 하는 적극적인 도시 숲 이용을 할 때 보다 희망적이고 삶에 대해 더욱 기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기에 해당하는 유아의 부모는 숲 체험 프로그램 참여와 같이 도시 숲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가족과 함께 숲 체험을 할 때 숲 체험의 효과가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제 4 절 부모-유아의 관계의 이해

1. 가족의 개념과 기능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통해 태어나고 가족 구성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삶을 영위해 나간다.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를 중심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로 부부, 부모, 자

녀, 형제 등 혈연에 의해 맺어져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원영희와 손화희, 2019). 그러나 가족의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며 어떤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하다. 가족의 협의의 개념으로는 Burgess와 Locke(1953)가 가족이란 '혼인, 혈연 또는 입양에 의해 결합된 집단으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라는 각각의 사회적 역할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의사를 소통하고 공통의 문화를 창조·유지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전통적 가족의 개념의 특성인 공동체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통적 가족 개념으로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광의의 가족 개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Hartman과 Laird(1988)는 '가족을 둘 이상의 사람들이 친숙한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밀접한 감정적 유대와 가정이라는 생활공간, 생물적·사회적·심리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역할과 과제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가족은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가 되며 가족 구성원의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가족의 기능은 가족 구성원 개인에 대한 기능과 가족의 사회 전체에 대한 대외적 기능으로 구별된다. 가족 내 기능은 성 및 자녀 출산 기능, 자녀양육과 사회화 기능, 경제적 기능, 보호 및 부양 기능, 휴식 및 오락 기능, 종교 기능 등이며, 대외적 기능은 성 통제 기능, 사회구성원 충원 기능, 노동력 제공 및 생활보장기능, 사회의 전통·문화 계승 기능, 사회 안정화 기능 등이다(원영희와 손화희, 2019).

가족은 개인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주기별로 단계별 발달과업이 존재한다. 원영희와 손화희(2019)는 한국인의 가족생활주기 단계를 가족형성기, 가족확대기(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축소기, 가족해체기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 가족은 유아기의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으로 가족생활주기 중 가족 확대기에 해당한다. <표 4>는 가족 확대기의 자녀 양육기의 내용만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4>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발달과업(원영희와 손화희, 2019)

가족생활주기		가족발달과업
가족 확대기	자녀 양육기	• 영·유아 양육에 따른 부모 역할 및 생활 변화에 적응 • 자녀양육 및 늘어난 가사노동에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 • 자녀를 위한 물질적·정서적 가정환경 조성 • 증가한 생활 비용 충족 및 자녀교육을 위한 경제적 계획 • 조부모가 된 양가 부모와의 관계 재조정 • 맞벌이부부 경우 양육 대체인력 및 양육방식에 대한 조정·적응
	자녀 교육기	초등교육기 → 중등교육기 → 대학교육기 (생략)

2. 부모의 역할

가. 부모-자녀 관계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는 말이 있다. 한 인간의 성장과 교육에는 많은 사람이 관여하지만 그중 특히 부모는 가장 우선적인 교사라는 의미이다(김영옥, 2009). 부모는 인간의 발달주기 중 성인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성인기로 진입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생산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발달과업의 수행이 요구되는데 에릭슨(Erikson, 1993)도 그의 전생애 발달이론에서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생산성 대 침체’라 표현하고 있다.[12] 부모는 사회에서는 직업적 역할을 수행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생산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신용주와 김혜수, 2003).

이 연구는 가족 숲 체험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12) 에릭슨(Erikson)은 내적 본능 및 욕구나 외적 문화적·사회적 요구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발달이 전 생애를 통해 계속된다고 주장하였다(Erikson, 1993; 정옥분, 2018).

였으며 그들이 숲 체험을 어떤 배경에서 선택하게 되었는지, 숲 체험 과정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또한 그러한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탐구한다. 따라서 연구를 실행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부모 교육 이론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이론과 전략들이 개발되어왔다. 이 이론들은 모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호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모-자녀의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모의 역할과 자녀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유아교육 분야에서 널리 인정받는 부모-자녀 관계 이론인 '민주적 양육이론'과 '인본주의 부모교육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Dreikurs의 민주적 양육이론

민주적 양육이론은 아들러(A. Adler, 1870~1937)의 개인심리학 이론을 부모교육에 적용한 이론이다. 민주적 양육이론을 주장한 드라이커스는 인간관계의 평등성을 가장 중요시하며 과거 부모의 권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이해하는 태도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드라이커스의 이론은 부모-자녀의 동등한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체계이며 이는 개방주의적 가족 상담에 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Dreikurs, 1958; 김영옥, 2009).

드라이커스는 유아기에는 다양한 활동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기 자신과 행동에 대한 신념이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아들러는 인간의 생활태도가 4~5세경에 거의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즉, 민주적 양육이론에서는 유아기를 생활태도와 양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본다. 드라이커스에 의하면 유아는 심리적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설정하는데 잘못된 행동들에는 관심 끌기, 권력 행사, 보복, 부적절성 등이 있다. 이때 부모들은 유아의 심리 기저에 깔린 불안함을 이해하고 '자연적 귀결'[13]

또는 ‘논리적 귀결’[14]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Dreikurs, 1958).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2) Ginott의 인본주의 부모교육론

기노트가 개발한 인본주의 부모교육이론은 인본주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을 부모교육에 적용시킨 부모훈련기법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감수성을 증진시키며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김영옥, 2009).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노트는 부모와 자녀 간에 상호존중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특히 유아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을 강조한다.

인본주의 부모교육의 목적은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모의 정서 상태를 판단하고 부모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아동 중심의 개입방법을 사용한다.

기노트에 의하면 부모들은 유아를 대할 때 아동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는 유아와의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대화 과정에서의 존중과 기술이 필요하다(Ginott, 1968).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 기술을 알려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실제에 적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본주의 부모교육론을 통해 부모가 유아를 인격적으로 대우

---

13) 자연적인 상황에서 유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보상 혹은 벌을 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아가 늦잠을 자면 유치원에 지각을 하게 되어 자유놀이시간이 부족한 자연적 귀결을 경험한다.

14) 특정한 행동의 결과에 따른 논리적인 규칙을 부모와 자녀가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함께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어떤 규칙을 설정할 때 자녀에게 상황에 따른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이다.

하고 부모-유아 간의 의사소통을 강조한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부모의 양육 참여

부모와 유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 부모와 유아가 함께 하는 시간이나 부모 양육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참여'란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Baruch & Barnett, 1986).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부모의 시간은 부모가 자녀의 생애 초기에 제공하는 인지적·사회적 자극과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Belsky, 2001). 자녀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 및 약물복용 등 비행이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Salem & Zimmerman and Notaro, 1998)와 부모의 양육 참여의 횟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Flouri & Buchanan, 2003) 역시 부모의 양육 참여를 강조한다. 또한 Flouri(2004)는 아동의 삶의 질과 발달에 부모의 양육 참여의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고, Rohner와 Veneziano(2001)는 부모의 따뜻함과 친밀감이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부모 양육 참여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자녀의 발달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상호자극을 받으며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관계로 인식되어야 한다(허자연과 문혁준, 2019).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때 우리는 가족 관계가 건강하다고 표현한다. 가족건강성이란 가족 상호 간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적절히 수행하고,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가치)적 관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어은

주, 1996). 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체제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고(박복매와 문혁준, 2008),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안선희와 김선영, 2004).

제 3 장 가족 숲 체험의 동기

제 1 절 과거: 유년시절의 자연 경험

1. 정소라: “어릴 때 자연에서 좋았던 기억으로”

부모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생애 배경에는 자연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부모 참여자들의 부모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자연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바탕이 되었다. 부모 참여자들은 유년시절에 자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연 경험을 지원해 주었던 그들의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며, 자녀 양육 과정에서 자녀에게 자연을 체험하게 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정소라는 현재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 전까지는 경남 C시에서 살았다. C시는 도심 지역이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등산을 선호하여 정소라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자주 다녔고 아이를 둔 부모가 된 지금도 친정에 가면 등산을 한다. 그녀는 어릴 적 산과 강, 바다 등 자연에서의 경험이 “정말 많이”있었다고 회상했고 가족들과 “바다에 가서 조개나 굴을 캤던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정소라는 유년시절의 기억을 토대로 자신의 자녀교육관을 정립하여 양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자연에서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과 기억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그녀의 자녀도 같은 경험을 체험하도록 할 목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한다.

정소라: 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어릴 때 자연에서 좋았던 기억으로 인해서 아, 내가 우리 아이에게 뭘 해줘야 할지가 윤곽이 잡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숲 체험을 알아보다가 숲 체험을 자주 다니게 된 거 거든요.

2. 이선호: 제주에서의 기억,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해주려고”

이선호는 유년시절에 제주도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 그는 아버지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약 6년 동안 제주도에 거주하다가 이후 서울로 이사했다. 이선호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안 항구와 바다가 가까운 곳에서 살며 부모님과 같이 혹은 아버지와 단둘이서 바닷가를 자주 찾았다. 가끔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버스 타고” 갈 때 여럿이서 같이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까운 항구까지 가기도 했으며 바다낚시를 한 경험도 있다. 이선호는 자신이 어릴 적 자연 경험을 많이 했고 그 배경에는 아버지의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렸을 때 자연을 가까이하며 성장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고마운 일인지 몰랐지만, 성인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노력임을 인지했다.

이선호: 서울에서 쭉 살았던 친구들보다는 그런 자연 경험을 많이 했었고요. 제주도에 살았을 때는 산도 가깝고 바다도 가까우니까. 제주도 살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산이나 바다 그런 곳을 많이 데려다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경험을 저한테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신 건데, 이건 제가 나중에 느끼는 거죠. 그게 노력이라는 걸 알지만, 그때 어렸을 때는 그런 게 고마운 것인지 실감하진 못했었죠.

이선호는 한국에서 입시의 문턱이 가장 높은 대학, 이른바 명문대학교 출신이다. 연구자는 그가 제주도에 살았던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습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지, 학습량은 어땠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선호는 수 초에 걸쳐 과거를 회상하며 “학기 중에 특별히 학원

은 안 다녔던 것”으로 기억했고 “중학교 1학년 때도 방학 때만 다니던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유년시절에 경험했던 자연 속에서의 일상, 학업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로움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있었다.

이선호: 아무래도 제가 제주도에서 살면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해주려고 하려는 것 같아요. 같이 등산도 많이 가려고 하고요. 애들 엄마랑도 의견일치가 잘 되어서요. 저희 아이들 둘 다 보습 학원 같은 데를 전혀 안 보내고 있어요. 예체능 종류 말고 국영수같은 학원은 안 다니고 있는데요.

3. 채나현: “부모님께 진 빚을 자식한테 내리로”

채나현은 줄곧 수도권에서 살았지만 도심 속에서도 자연에서 보낸 기억이 선명하다. 그녀는 유년시절 부모님과 함께 한강을 자주 찾았었고 지금도 부모님께 그 추억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곤 한다. 채나현은 어릴 적 한강에서 사계절을 경험했던 기억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부모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으며 “부모의 노력”이었다고 평가한다.

채나현: 저는 어릴 때 한강 고수부지를 되게 자주 갔어요. 고수부지에서 자전거도 배우고 그곳 꽃밭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장소는 같고 계절과 옷만 바뀌었어요. 그런 것들을 어른이 되어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경험을 많이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엄청 거창하게 어디를 가는 게 아니더라도 자주 가는 곳에서 자연을 체험하게 하는 게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걸 많이 알아보고 가는 것도 부모의 노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채나현의 자녀는 현재 유료로 운영되는 사설 유아 숲 체험 업체에서 1년 과정의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이 사설 유아 숲 프로그램의 대상은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숲으로 안내하는 선생님을 포함하여 소수의 유아들로만 구성된다. 채나현은 사설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과 산

림청 조성의 유아숲체험원에서 제공하는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아이에게 자연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께 진 “빚”이며 “부채”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채나현은 “부모님께 진 빚을 자식한테 내리로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숲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연친화적 장소를 찾는다. 채나현의 남편 역시 아버지와 주말마다 등산을 갔던 경험을 긍정적으로 회상하며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였지만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다. 채나현과 채나현의 배우자는 모두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자녀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는 “부채감”을 갖고 있다.

4. 김다은: 농촌에서 자란 부부의 “자연스러운 선택”

김다은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 집 앞에 논이 있는 농촌에 살았다. 김다은의 부모님은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그녀의 친구들의 부모님 중에는 농사를 짓고 사는 이들이 많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다소 높은 교육열로 인해 어린 김다은의 TV 시청은 제한했지만, 자연에서 노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덕분에 김다은은 친구들과 자연 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하며 성장했다.

김다은: 저는 남편처럼 부모님이 농사를 짓지는 않으셨는데, 중학교 때까지 농촌에 살았어요. 집 앞에 논이 있었고, 저희 부모님 직업은 농업이 아니었지만 친구들의 부모님은 농사 짓고 사는 분들도 많았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자연에서 놀았던 기억이 많긴 해요. 집 옆에 되게 넓은 잔디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메뚜기같은 곤충 잡아서... (잠시 구술을 멈추었다가 웃음) 어렸을 때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웃음) 그런 메뚜기 먹은 적도 있고. 집 앞에 연못이 있어서 연못 주변에서 친구들끼리 비밀 기지를 만들어서 놀고요. 어른들 몰래 연못에 징검다리 건너가서 놀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교육열이 좀 높으셔서 저를 놀게만 두진 않으셔서 놀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시골 살면서 진짜 많이 놀았고요. 저는

하루 종일 계속 놀진 않았는데, 엄마가 TV는 못 보게 하셨지만 밖에서 노는 건, 자연에서 많이 놀게 해주셨어요.

김다은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충분히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성장했지만, 그녀의 남편을 두고 “정말 시골 아이” 답게 자란, “완전 시골 사람” 으로 표현하였다. 김다은의 남편은 자연에 대한 경험은 물론이고 어린 시절부터 습득해 온 자연 생물에 관련된 지식이나 기능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김다은의 자녀인 쌍둥이 형제가 현재 숲 체험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연을 경험하는 것은 농촌에서 자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연스러운 선택” 이다.

김다은: 아이들 아빠는 어른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 되게 바쁘셔가지고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의 밖에서 살다시피 한, 그만큼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면서 자랐고요. 보통 사람들이 정말 시골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자연에서 썰매 타고, 뭐 잡고, 미꾸라지나 물고기도 잡고. 완전 시골 사람이요. 물고기도 어떻게 하면 잘 잡는지도 알더라고요. 통발을 어디에 놓으면 잘 잡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이번 여름에도 뜰채로 아이들이랑 뭐 잡으러 많이 다녔고요.

부모 참여자들은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 도심이든 시골이든 모두가 자연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그들이 어린 시절에 자연과 교감하는 삶을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운 정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부모의 노력과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참여자들은 자신의 유년시절의 경험이 자녀의 숲 교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년시절의 긍정적인 자연경험은 부모 참여자들이 가족 숲 체험을 신청하게 된 동기의 근원(根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 참여자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자연이 오로지 ‘좋은 것’ 이었다면, 부모가 된 현재의 자연이란 ‘옳은 것’ 을 의미한다.

제 2 절 현재: 자녀교육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육관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교육기관 선택에서 가장 쉽게 드러난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자녀의 교육기관으로 유아 중심・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선택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오감 체험과 놀이를 매우 중요시하며 자녀들의 신체적 건강・정서적 안정감을 우선으로 삼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유아교육에서 유아의 삶을 놀이 그 자체로 규정하는 것과 유아기를 정서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참여자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유아 발달에 적합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교육관은 자녀들에게 다양하고도 활동적인 체험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1. 정소라: “아이들을 위해서 숲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정소라의 자녀는 레지오 에밀리아 중심의 유치원에 재원 중이다.[15] 정소라는 자녀가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자연을 포함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데 이는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 추구하는 교육방법이기도 하다. 정소라는 스스로가 자녀의 유아교육교육 기관 선택에 있어 신중한 면모가 많았다고 생각하며, 유치원 입학 전 방문을 통해서 “어른들이 보내고 싶은 욕심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숲과 같은 자연에서의 교육에 관한 자신의 신념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

15)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Reggio Emilia approach)은 이탈리아 북부의 레지오 지역에 소재한 에밀리아 유치원에서 최초로 시작됐으며, 학생 중심의 구성주의 교육과정으로 창조적 본능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체험학습 방법을 추구한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는 탐구, 발견, 놀이를 통한 존경, 책무, 공동체의 원칙에 기반을 둔다.

정소라: 지금 다니는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은 유치원 자체에서 자연 체험도 많이 하고, 탄천도 자주 가요. OO산으로 가서 뭐 심고, 수확하고, 감자, 고구마 같은 것들이요. 제가 숲 체험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보내게 된 것도 있어요.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자기 작품 발표시키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정소라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 하며 숲을 비롯하여 다양한 체험장을 찾아 나선다. 정소라의 자녀와 심층 면접이 있던 날은 오전에 판교공원에서 만났는데 오후에는 "체리농장" 체험에 예약이 되어 있었다.

정소라: 저희는 주말마다 무조건 나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빠도 주말에는 일을 전혀 안 해서, 주말마다 숲 체험이든 갯벌 체험이든 체험 위주로 무조건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정소라에게 숲은 유아기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 교육적 요소를 골고루 갖춘 환경의 완성체로서 존재했다. 정소라는 가족 숲 체험을 통해 자녀에게 "책으로 읽어주는 것이랑 직접 경험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또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는 없" 는데 숲 체험을 통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매번 다양한 또래들을 만날 수 있으므로 "사회성" 을 기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정소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숲만한 곳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숲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는 장소로 인식한다.

정소라는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여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최근 풀 배터리 검사에서 자녀의 IQ가 또래보다 높게 측정되어 정서적인 문제는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숲에 가는 것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정소라: 우리 애가 IQ가 높게 나오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연이가 배우고 싶은 게 많으니까 다 시켜주고 있기는 한데, 주말만큼은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편안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숲을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곳으로 기대하였고, 실제로 4세부터 현재 나이 6세까지 자녀의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관찰하며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더욱 자주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이선호: “선행학습보다는 자연 체험같이 중요한 것들을”

이선호는 가족 여가활동으로 캠핑과 등산을 즐긴다. 또한 그는 숲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아를 위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예약을 하여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보통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알게 되어 시작한다고 말했다.

> 이선호: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 잘 가고요.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캠핑이나 등산, 가끔 공원에 가서 자전거나 인라인 타는 활동을 하죠.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아이랑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을 같이 하는 거, 천막 치는 그런 것도 가족이 같이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결혼 전에 가졌던 기준으로는 간단하게 챙겨서 산에 가서 자는 건데, 실제로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서요. 절충해서 차에다가 캠핑 장비들을 싣고 편한데 가서 설치는 직접 하는 식으로 하고 오죠.

이선호는 2년 동안 소위 좋은 학군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아파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다. 해당 지역이 학업적인 환경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여 이사를 갔으나, 미취학 유아들에게 학업적인 부담을 과하게 “푸시(push)”한다고 느껴서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이사를 왔다.

> 이선호: 전세로 2년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학교가 좋다기보다는 애들을 초등학교 전부터 푸시하는 동네인 것 같다 하고 다른 데 가자 하면서 다시 OO으로 나왔어요.

그는 독일식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선행학습은 지양하고 자연에서의 경험과 신체 운동 경험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선호: 독일에서는 어릴 때 자전거, 수영 이런 운동은 기본으로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상에서, 어디든 자기가 위험해지지 않을 만큼 스킬로서 자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이의 부모가 되어 보니.. 아이들에게 선행학습보다는 자연 체험같이 중요한 것들을 꾸준히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3. 채나현: “점수화 되지 않은 교육”

채나현은 현재 초등교육을 전공한 현직 교사로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을 때와 현재의 교육관에 변화가 있다. 채나현은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며 “행동주의”가 최고의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했으나 최근 자녀와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유아숲지도사의 태도를 보며 숲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채나현: 저도 사실은 아이가 없었을 때는, 행동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웃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학자들이 나온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발도르프 이런 내용 보면서 이게 무슨 허황된 소리야? 라고 했지만 밖에 다니면서 보면 점수화되지 않은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남편과의 대화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자녀에 대한 학업적 기대를 발견하였다. 채나현 부부는 “비언어적” 강요로 인해 자녀가 학업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자녀가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더 많은 체험을 제공하고자 결심했다.

채나현: 아.. 사실은 저랑 남편은 공부하는 길로 살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이에게 공부로 갖는 기대를 둘이서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술자리에서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인데, 어떤 부부는 500억이 있

으면 아이가 대학을 못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500억을 물려주면 되지, 뭐하러 대학을 보내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부 생각에는, 저는 남편에게 '우리 하은이가 대학을 못가면 나는 슬플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굳이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아도 학업에 대한 기대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걸 안 순간부터 그걸 잊기 위해 더 노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언어적으로라도 학업적인 기대를 강요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맹목적이면 아이에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부도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 마음으로는 학업적 기대를 가지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런 강요가 없어서 잘 된 걸 수도 있는데. 80년대의 우리는 그런 학업적 기대가 컸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은 주말에도 일을 해서 제가 주말에 하은이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남편이 저희가 밖에 다니는 것에 대해 되게 뿌듯해 하는 이유가, 많은 학업적 기대를 갖는 걸 지양하자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 이후 최대한 경험, 체험을 많이 시켜주자고 생각했어요.

채나현은 "주말에는 무조건 나가자"는 생각으로 숲 체험 이외에도 도서관, 문화센터, 국립국악원 등 자녀가 질 높고도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찾는 데에 애쓴다.

채나현: 저희 남편이 주말에도 일만 해서요. 우리 둘만 집에 있을 수는 없다 하고 무조건 나간다는 생각이에요. 도서관같은 데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주말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되기만 하면 좋죠. 1회성 프로그램도 많이 갔구요. 북스타트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요. (웃음) 그런 외부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숲 체험하는 것도 편안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처음에 가는 게 어렵지 계속 가다가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4. 김다은: "주말에 이렇게 사는 게 삶의 목적"

김다은은 "주말에는 항상 아이들이랑 어디라도 가려고" 노력한다. 김다은은 수시로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를 들어가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색하고 여가 계획을 세운다. 그녀는 “주말에 가족이랑 뭐할지 한 달 전 쯤에는 계획”을 하며, 쌍둥이 자녀들의 자연에 대한 고조된 관심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캠핑도 다니기 시작했다. 워킹맘인 그녀는 주말에 자녀들과 안정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

김다은: 저는 좀 병적이라는 생각도 하는데. 주말에 이렇게 사는 게 삶의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중을 버틸 수 있고,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줘야 내가 엄마로서 뭔가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김다은: 요즘에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거든요. 몇 년 전에는 예약하려고 해도 아이들 나이가 안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했어요. 거기에서도 주말에 ‘아빠랑 함께 숲 놀이 프로그램’ 이런 것도 모집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만 간 게 아니라 저희 구와 가까운 다른 지역구 센터도 이용을 했어요.

김다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즐거워서요. 제가 일을 하니까 ‘주말에 우리 애들한테 뭘 해주지? 주말에 우리 애들이랑 어디 재밌는 데를 가보지?’ 이런 생각으로 주중을 버텨요. 그러니까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를 열심히 들어가는 거고, 거기 숲 체험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많이 신청하는 거고요.

김다은은 “아이들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숲이 당연히 교육 쪽으로 좋다는 건 알고 있었”다. 김다은의 쌍둥이 형제 자녀들은 세 살부터 자연물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동생 수현이는 “덕후처럼” 돌, 개미 등 자연물에 “큰 관심”을 보여서 “사회성이 없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다. 이러한 자녀들의 자연에 대한 큰 관심과 더불어 김다은 부부가 유년시절에 경험한 풍부한 자연 경험을 바탕으로 쌍둥이 자녀들은 영아기부터 다양한 자연 체험을 경험했다. 따라서 채나현의 가족에게 유아숲체험원에서의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은 자녀들이 네 살(만 2세)부터

참여한 숲 체험 프로그램의 바통을 이어받는 격이었으며 수많은 자연 체험 중 한 가지로 매우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김다은: 제가 숲 체험을 그 전에 안 하다가, 유아숲체험원의 숲 체험을 처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저희들끼리 숲에 놀러 갔던 것들도 많으니까, 어떤 도구만 바뀔 뿐이고 거기서 활동하는 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숲에 가면.. 음. 숲 체험이 아이들에게 좋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비슷한 것들을 하겠지하는 생각이 있어서였죠. 안 해 본 특별한 것들을 한다는 기대는 하지 않았고 제가 아이들이랑 많이 보고 했던 걸 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죠.

김다은은 자신의 자녀교육관은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체험”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녀와 함께 매일 꾸준히 책을 읽고 그 내용들이 숲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자녀의 흥미와 결합한다면, 자녀가 세계를 더욱 잘 이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김다은: (자녀 교육에 대해) 두 개의 축인데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체험이에요. 책을 많이 읽고 실생활에서 체험을 많이 하는 아이는 그것들이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9개월쯤? 유모차를 탈 때부터 많이 다녔어요. 남편도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할 텐데 이렇게 다니냐 했는데, 저는 이게 쌓이면 무시 못한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제 3 절 소결

연구자는 본 장에서 부모 참여자들이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내재적 동기를 탐구하였다. 부모 참여자들의 생애적 배경에서 특징적인 공통점은 유년시절의 자연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에 관한 것이

다. 부모 참여자들은 그들의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어린 시절에 산과 바다, 강가를 자주 오갔으며 자연 경험이 많을수록 장면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었다. 자연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의 축적은 그들이 애써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은 '좋은 것'이라는 사고의 틀이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암묵적 태도의 강력한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연구(Rudman et al., 2007)와 환경교육운동가의 형성 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생활세계에서 풍부한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환경교육 운동의 동기와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어린 시절의 자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 시절의 기억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전개된다는 장미정(201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긍정적인 숲 체험 및 자연 경험은 훗날 유아가 자연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지닌 시민으로 거듭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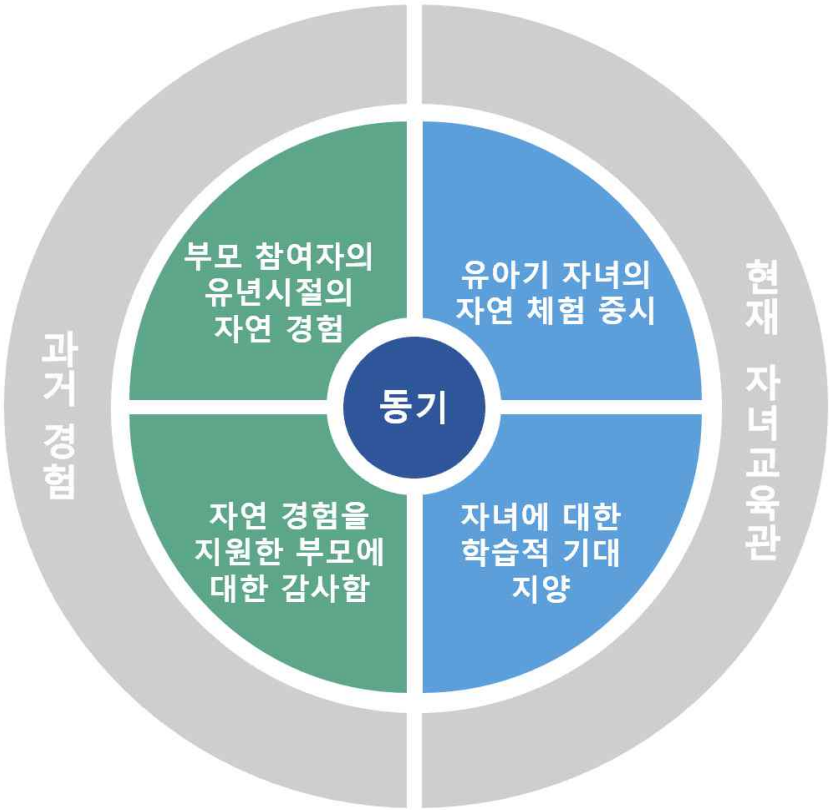
부모 참여자들은 당시 당연하게 여겼던 자연 체험들을 부모가 된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그들의 부모가 어린 그들에게 베푼 배려이자 자연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였다. 부모 참여자들은 자연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던 그들의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이 경험했던 '좋은 것'을 부모가 된 현재 '옳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 참여자들은 과거에 자신이 제공 받아 누렸던 자연을 유아기의 자녀에게 마땅히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자녀들이 자연과 충분히 교감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종합하면, 부모 참여자들의 유년시절의 자연 경험과 그러한 경험을 가능하도록 도와준 부모에 대한 감사는 가족 숲 체험이라는 활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매우 강한 내재적 원천으로서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의 유년시절의 자연 경험이 가족 숲 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현재의 '자녀교육관'은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참여자들은 '아동 중심'의 교육관을 토대로 유아기의 자녀와 민주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부모 참여자들은 유아기부터 과도한 학습을 시키는 사회적 현상이나 부모가 유아기의 자녀에게 학

습적인 기대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자녀가 직접적인 자연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 참여자들의 특성은 자녀의 유아교육기관 선택과 선호하는 가족 여가활동에서도 드러난다. 이 연구의 유아 참여자들은 모두 부모 참여자들의 선택으로 유아 중심·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또한 참여자 가족들은 가족 여가활동으로 밤 따기, 갯벌 체험, 농업 체험 등 자연 체험 중심의 활동을 선호하고 산, 바다, 공원을 자주 찾으며 캠핑을 즐기기도 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정보 탐색이 이루어진다.

부모 참여자들은 유아기의 자녀에 대해 자녀 나름대로 자신의 세계관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로 인식하며 이 시절을 충분히 놀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본인들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심리 상태로, 자신이 어린 시절에 누렸던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을 자녀와 함께 재현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부모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은 자녀교육관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을 향한 욕구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로 ‘숲’을 찾는다. 부모 참여자들의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그림 3>으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3> 부모 참여자의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 참여 동기

제 4 장 가족 숲 체험의 의미

제 1 절 의미 있는 가족 숲 체험의 내용 요소

참여자들에게 가족 숲 체험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 즉 참여자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가족 숲 체험의 내용 요소는 개인의 사전 경험과 참여 횟수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부모-자녀 간의 질 높은 상호작용' 이 이루어지거나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활동' 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정소라는 2년 이상에 걸쳐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10회 이상 참여한 참여자로서 뜻깊게 참여한 숲 체험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나무 열매 씨앗" 을 주제로 운영된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서 "박주가리씨" 를 날렸던 체험을 가장 의미 있는 체험으로 꼽는다. 정소라는 아이들이 씨앗을 "후~" 하고 불 때, "씨앗이 사방팔방에서 날아가는 그 모습" 을 선명하게 기억하며 "사진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예뻤을 그런 장면" 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림 4>는 박주가리의 사진이고, <그림 5>는 정소라가 제공한 박주가리씨를 날리는 장면이다.

정소라: 그 판교공원에서 숲 체험했던 건데. 혹시 박주가리씨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후~' 불면 깃털처럼 날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민들레 씨앗처럼 날아가는데 민들레 씨앗처럼 가벼운 게 아니라 진짜 깃털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박주가리씨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게 날아가는 그 장면이 너무 예쁘게 남았어요. 기억 속에서요. 그때는 나무 열매 씨앗이 주제였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림 4> 박주가리[16] (국립중앙과학관-우리나라 야생화)

<그림 5> 박주가리씨 날리는 장면 (정소라 제공)

16) 박주가리는 덩굴성 다년생 풀로 박주가리씨가 다 여물고 바람에 껍질이 마르면서 적당히 벌어지면 씨가 흰 깃털에 달려 나오는데 겨울의 센 바람에 날려가서 개체를 번식시키는 지혜가 있다. (출처: 국립중앙과학관)

정소라는 이밖에도 단풍나무 씨앗이 바람을 타고 프로펠러처럼 퍼지는 것, 거미와 사마귀를 직접 보고 만져 본 경험, 새의 배변에서 씨앗을 발견한 것도 의미 있었던 체험 내용으로 지목했다. 정소라가 의미를 부여하는 체험의 주요 소재인 박주가리씨앗, 단풍나무 씨앗, 거미, 사마귀는 길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숲 체험 중에 만나는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정소라는 숲에서 자녀와 함께 작은 생명의 삶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느껴보며 새로움과 놀라움을 경험한다.

이선호는 올해 6월에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여한 연구참여자이다. 이선호는 가장 의미 있는 숲 체험을 유아숲지도사가 계획한 프로그램 내용보다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유아숲체험원에서의 자유 시간에서 찾는다. 이선호의 자녀는 유아숲체험원에 조성된 “밧줄 다리”에서 즐겁게 오랫동안 놀았다(그림 6). 이선호는 그의 자녀가 본 프로그램보다 “숲 놀이터”에서 더 많은 흥미를 느꼈다고 생각한다. 이선호가 밧줄놀이터에서 자녀와 보낸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녀가 가장 즐거워한 시간이며 자신이 부모로서 도움을 주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선호: 산에 올라갈 때 준우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끝나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 그곳에 가봤더니 아이가 되게 좋아했어요. 혼자 놀 때는 밧줄을 흔들어 달라고 해서 밧줄을 흔들어 줬고요. 그러니까 재밌다고 좋아하면서 더 해달라고 해서 더 흔들어주었고요.

연구자는 이선호가 유아숲지도사가 이끄는 숲 체험 프로그램 내용보다 이후 자유시간이 더 의미 있는 체험이었다는 말을 김다은의 구술 내용과 비교해보았다. 김다은은 쌍둥이 자녀가 네 살일 때부터 가족 숲 체험에 참여하며 여러 유아숲지도사가 계획한 다양한 체험들을 경험해 왔다. 김다은은 어떤 날은 프로그램 내용이 “시시하거나 별거 없”기도 하지만 가족과 숲에 가기 위한 장치로 예약을 하고, 이후 가족들만의 즐거운 자유시간으로 “시시”함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6〉 산성공원 유아숲체험원의 밧줄다리(사진: 연구자)

김다은: 사실 체험하러 갔는데 어떤 날은 선생님이 준비하신 프로그램이 너무 시시하거나 별거 없거나 그 주변에 너무 볼 게 없거나 그런 날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예약을 걸어놓고 약속을 잡아놓으면 일단 출발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과의 활동은 짧았더라도 그 뒤에 연결해서 우리가 그냥 숲속에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신청했던 것도 많았어요.

이러한 생각은 숲 체험 프로그램에 오랜 시간 동안 참여해왔던 이의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이선호처럼 처음으로 가족 숲 체험을 시도하는 부모들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아숲체험원에 조성된 숲놀이터, 즉 놀이시설이다.

채나현은 숲속에서 자녀와 “그냥 걸었던” 것을 가장 의미 있는 체험이라고 생각한다. 채나현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천천히 걸었던 경험이 별로 없”고 걷는 행위를 하며 “내가 이 아이랑 천천히 걸은 적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걷는 것 자체가 좋다”고 느낀다. 평소 그녀는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목적지를 향해 바삐 걷지만, 숲 체험에서는 걷기란 단지 숲의 땅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 자체가 목표로 작용한다. 또한 채나현은 유아숲지도사들이 유아들

의 걸음의 속도와 방향을 수용하는 모습에서 감사함을 느낀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그녀는 직업 특성상 프로그램의 짜임새와 유아숲지도사들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한다. 채나현은 숲길을 걸으며 유아숲지도사가 유아 참여자들을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게 인상깊었”다.

채나현: 음.. 그냥 걸었던 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학습하고 그려보고 하는 것들, 프로그램적인 것들은 강사분이 준비하는 걸 제시해주는 거지만, 걷는 상황에서 아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체험하는 것들은 되게 우발적인 거잖아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고요. 걷는 상황에서 우연히 볼 수 있는 곤충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갑자기 솔방울이 하나 뚝 떨어진다든지 하는 건 전혀 기획되어 있지 않은 거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아이랑 같이 물리적으로 걷는다는 행동은 마트에서도 학원가는 길에서도 할 수 있다면, 숲에서 걸었던 것은 어떤 목적성 없이 걸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채나현: 그 강사 선생님은 천천히 걷든 빨리 걷든 제지하지 않아 주셨는데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제 기억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스케쥴을 짜신 것 같아요. 원래 강사 입장에서 수업을 짤 때 시간을 분배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끝내야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강사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 운영의 매끄러움이 없다기보다는 활동을 이거 다음은 이거, 이거 다음은 이거, 이런 급한 모습이 없으셨고 애들이 충분히 걸으면 걷는 대로, 이걸 하면 이걸 하는 대로.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이 뭘 많이 하면 족욕하는 시간을 약간 플렉시블(flexible)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노는 걸 더 놀지언정.

김다은에게 가족 숲 체험 경험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체험은 두 가지이다. 쌍둥이 형제 자녀가 다섯 살 때 다니던 공립 단설유치원에서 제공한 “부모참여 숲 체험” 수업과 김다은이 직접 신청한 숲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고라니 똥 찾기” 체험이다. 김다은은 “가족 성향이 원래 그런 자연 활동들을 좋아하는데 유치원까지 그런 걸 지원”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부모참여 수

업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김다은: 유치원에서 한 체험인데 거기 정릉 북한산 뒤에 둘레길에 나무 데크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아요.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요즘 다람쥐 먹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서 도토리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거를 애들이랑 같이 도토리를 싸 보는 활동을 했어요. 그런 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코스별로 계셔서 부스마다 미술 활동 이런 것들 준비해 주셔서 그런 거 아이들이랑 같이 했던 것도 좋았고, 전통 놀이 같은 것도 준비해 주셨는데 전통 놀이가 또 숲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김다은은 자녀들과 “고라니 똥 찾기” 과정에서 고라니의 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자녀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했던 기억으로 인해 충분히 가치 있는 체험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김다은은 유아숲지도사가 가족들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주었을 때 가족 숲 체험의 의미가 커진다고 생각한다.

김다은: 그때 고라니 똥 찾기. 똥 찾기를 했어요. 이제 수현이가 그때 되게 똥 찾는 거를. 그 똥 찾기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약간. 이게 시기상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이 이제 미션을 주시니까. 잠깐 찾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래서 수현이가 약간 그 선생님이 얘기한 반경보다 좀 넓게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되게 꼭 하고 싶어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멀리까지 막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신발도 더러워지고 힘들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잘 따라 다녀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 고라니 똥은 못 찾았는데 그래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김다은: 선생님 설명만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교실에서 공부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든지. 그게 선생님은 안 계셔도 그 활동에 연결해서 우리끼리 놀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가 동일한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유아숲체험원의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개인이 경험한 숲 체험 내용이 각기 다르다. 게다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각자의 가치관이나 사전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가족 숲 체험 내용 요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부모 참여자와 자녀 참여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자녀의 즐거움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순간이다. 부모는 숲에서 자신의 즐거움과 더불어 자녀가 즐기는 모습을 보면 만족감이 훨씬 높아진다. 숲을 찾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무엇보다 자녀의 즐거움, 행복에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숲속 생명을 배움으로써 느끼는 새로움과 놀라움이다. 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숲 체험 내용은 풀과 나무, 곤충 등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자연을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로 관찰하는 것과 그것들을 직접 보고 냄새 맡고 만져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경이로움은 숲이 주는 신비로운 공간적 특성과 가족 체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더욱 의미가 깊어진다.

제 2 절 가족 숲 체험의 교육적 함의

1. 유아가 숲으로부터 얻는 교육적 의미

가. 오감 체험을 통한 자연친화적 태도 형성

유아 참여자들에게 숲은 충분한 오감 체험이 허용되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살아있는 자연을 보고, 새의 지저귐과 곤충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냄새와 흙 내음을 맡고, 보드라운 손끝으

로 그 모든 것들을 만질 수 있는 곳이다.

부모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숲에서의 직접적인 체험 학습과 책을 통한 학습을 비교하여 설명했다. 부모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다양한 감각으로 만나는 숲 체험을 통해 자연을 즐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소라: 아이들에게 책으로 읽어주는 것이랑 직접 경험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냥 아이한테 설명해 줄 때보다, 아이도 경험하고, 겪고 나니까 무서워 보이는 곤충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고요.

이선호: 준우도 그런 (지식적인 측면의) 설명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아, 처음에 산에 올라가기 전에 선생님 옷에 나방애벌레가 붙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나뭇가지에 붙여서요. 그 관찰을 준우가 흥미 있게 잘 봤어요. 준우가 책은 많이 안 읽지만 자연에서 뭔가를 관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산은 유치원이나 집과는 또 다른 환경이니까요.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자극이 많고요.

채나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에게 매미소리를 선생님이 들려주셨다고 했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하은이가 따라 하거나, 숲에 뭔가가 살고 있고, 그들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거미도 책도 있고 노래도 있지만 실제라는 것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숲에 가서 실제로 보기도 하고, 사람이 거미를 해치면 안되니까 거미줄 밑으로 기어서 가려고 노력하고요. 그런 부분을 배운 것 같아요. 책에서 본 게 진짜 살아있다는 것, 삶이 있다는 것을 배운 거죠. 저 그날 청솔모도 봤거든요. 동화책에 다람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있네? 하고. 도토리도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아이가 ‘이건 다람쥐가 먹을 거니까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이다은: 책만 읽는 것보다는.. 자연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책 내용이랑 연결이 되기도 하잖아요. 숲에 가면 선생님을 따라다니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든 어쨌든 가면은 이 숲을 보는 활동 자체에 대해서 항상 흥미진진해 하고, 숲에는 뭔가 나를 재미있게 해주는 게 많아 이런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든 대충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뭔.가. 재미있는 게 있어!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소라는 자녀는 원래 거미를 무서워했으나 거미를 주제로 한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거미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정소라는 유아숲지도사가 자녀에게 거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거미 모형과 실제 거미를 보고 만져 보게 한 것이 엄마가 “거미는 무섭지 않아” 라고 언어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와닿았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후 그녀는 자녀가 “거미 박사님” 으로 유명한 “남궁준 박사님” 의 책을 좋아하게 되어서 그 당시 자주 읽어주었다고 회상했다.

정소라: 아이가 거미를 무서워했는데, 거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뒤로는, 거미에 대해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거미에 독이 있지만, 사람에게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거미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게 없어졌어요.

유아들이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는 유아숲지도사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정소라 자녀는 장래에 “숲 체험 선생님” 이 되고 싶다. 다년간의 숲 체험을 통해 스스로가 결정한 꿈이다. 연구자도 정소라의 자녀와 1:1 심층 면접을 진행할 때 직접 “숲 체험 선생님” 이 되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정소라: 수연이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걸 되게 즐겨요. 수연이는 숲 체험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되게 좋아해요. 자기는 나중에 숲 체험 선생님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때 자주 봤던 선생님 이름도 기억나는데, 닉네임으로 무당벌레 선생님이셨거든요. “(아이 말투로) 나도 그 무당벌레 선생님처럼 숲

체험 선생님 될 거야!” 이렇게 말했었어요.

한수연: 저는 자연에서 살 거예요!
연구자: 수연이는 왜 자연에 살고 싶어요?
한수연: 음. 자연에서 자연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연구자: 그랬구나. 자연의 친구들은 누굴까?
한수연: 풀이나 토끼요.
연구자: 풀과 토끼랑 살고 싶었군요. 그럼 자연은 어디예요?
한수연: 자연은 여기에요.

-2021. 6. 6. 판교공원 유아숲체험원
정소라의 자녀, 한수연 유아와의 심층 면접

판교공원은 신도시의 근린공원이지만 아파트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정돈된 조경의 모습 대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고, 공원 대부분이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8등급지에 해당되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공원이다.[17] 한수연 유아는 이곳을 “자연”이라고 생각했고, “자연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채나현은 유아숲지도사가 유아들을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것과 “탁월”한 “언어선택”, 그리고 “아이들이 뭘 주우면 같이 따라가서 봐”주시는 “선생님의 시선”이 유아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조심스럽게 자연을 대하고 유아들의 시선을 그대로 따라가 주는 미덕을 골고루 갖춘 유아숲지도사의 태도는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작용하여 유아 참여자들의 자연친화적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채나현: 그게 아마, 숲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개구리의 한살이를 설명하실 때도 이게 되게 신기하고 소중한 거라고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런 자연을 볼 수 있는 것도 자연이 우리한테 허락을 해줘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아침에 선생님이 여기 왔을 때는 이 곤충이 없었는데 지금은 있네. 너희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온 건 가봐.’ 이런 말씀을

17) 성남시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sntjdska123

많이 해주셨어요.

채나현은 자녀의 유치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자녀가 유치원에서 만나는 생명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한다.

채나현: 지난번 숲 체험에서 배웠는데 지렁이를 손으로 잡으면 지렁이가 화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손이 따뜻하니까 그렇다는 걸 알게 되어서. 하은이가 유치원 텃밭에서 “지렁이는 손으로 잡으면 안 돼!” 하면서 나무 막대기로 들어서 다른 데 보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식을 아는 친구들과 모르는 친구들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많아서 계속 숲에 다닐 것 같아요.

채나현은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연주의 교육 철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채나현은 숲 체험 프로그램 자체와 숲이라는 공간 곳곳에서 교육적 요소를 발견한다. 그녀는 숲 체험을 하기 전에 숲 체험 프로그램을 단순한 “체험”이라는 시각에서 보았다면 숲에서 자녀가 배우는 모습과 변화들을 관찰하면서 “교육”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채나현: 음... 사실 발도르프교육, 자연주의 교육 이런 거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아이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고, 막연하게 프로그램화 되지 않은, 이상향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정신이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구현하는 것은 되게 어렵다, 실제로 교육화시키는 것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숲 체험을 하고 나서는 약간 아,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 숲 체험하기 전에는 되게 막연했거든요. 숲 체험에 ‘교육’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에버랜드 가는 거나 놀이터 가는 것처럼 어디를 방문하는 거지, 교육이라는 것은 확실히 어떤 목표가 있고 이 사람이 이거를 배우고 나서는 배우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면, 숲 체험은 체험이지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막상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숲 체험 교육이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김다은의 쌍둥이 자녀들은 길가에서 흔히 보는 식물에 대해 호기심이 생길 때 엄마인 김다은에게 “모야모 앱에 사진을 찍어 올”려 달라고 요청한다. 김다은의 자녀들은 유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과학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해도 건물 내 주요 콘텐츠보다는 건물 주변의 자연에서 노는 걸 즐긴다. 김다은은 쌍둥이 자녀들을 위해 “돈내고 티켓팅 할 필요” 없이 “자연에 풀어 놓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구나 하는 걸” 느꼈다. 과학관이나 박물관도 자연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가 많은 장소이지만 김다은의 쌍둥이 자녀들은 자연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만나는 것이 가장 즐겁다. 김다은은 이러한 자녀들의 성향에 대해 “자신의 관심 영역이 뚜렷한 게 좋다”고 평가하며, 쌍둥이 자녀들이 몇 해에 걸쳐 가족 숲 체험에 참여하면서 “예전부터 좋아하던 자연”에 대한 “그 태도가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김다은: 저희가 (최근) 연휴에 여행을 짧게 갔다 왔는데 충남 예산으로 갔거든요. 거기는 민속촌 플러스 박물관 플러스 놀이터인데 거기서 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방아깨비, 사마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가볼래? 저기 가볼래? 하면은 따라오긴 하지만 그게 1순위라기보다는 방아깨비가 1순위인 거예요.

김다은은 자녀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김다은: 풀을 밟으면 아프다, 뭔가 잡으면 집에 갈 때는 놓아줘야 한다고 계속 가르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알아서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뭔가 잡으면 집에 갈 때 알아서 풀어주고 오고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한편 연구자는 부모 참여자들의 구술 내용에 깊이와 이해를 더하기 위해 유아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 야외에서 자연물 놀이를 하는 가운데 가족 숲 체험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을 미술로 표상하는 활동을 준비하였다 (그림 7).

<그림 7> 한강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쌍둥이 유아 참여자(사진: 연구자)

그러나 연령적 특성으로 인해 현재 눈앞에 있는 나무와 흙, 개미 등에 대해 흥미를 보이는 유아에게 과거의 가족 숲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는 것은 예상대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미리 준비해 간 미술 활동을 진행하며 숲 체험 표상 과정에서의 상호작용과 미술 결과물에 대해 분석하였다. 유아 참여자들은 과거의 숲 체험 경험을 미술활동으로 표상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감을 나타냈고 표현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이야기해주기도 했다.

네 살(만 2세) 때부터 숲 체험을 시작했던 한수연 유아(정소라의 자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숲 체험으로 사마귀를 손과 팔에 얹어보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정소라에 의하면 1년 이상이 지난 체험이라고 한다. 한수연 유아는 사마귀의 날개가 “보들보들” 하다고 표현했다. <그림 8>은 한수연 유아 참여자가 그린 그림이다. 왼쪽에 자신을 그리고, 오른쪽에 모자를 쓴 유아숲지도사 선생님을 그려 넣었다. 초록색과 연두색으로 숲에서 본 풀들을 표현하고, 가운데에 자신의 손을 대고 손 모양을 그린 후 그 위에 큰 사마귀를 표현했다. 지면의 가운데에 손과 사마귀를 크게 표현한 것은 사마귀가 손 위에 기어가는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자: 수연이는 숲 체험한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한수연: 제일 재미있었던 숲 체험은 숲 선생님이랑 옛날에 만났을 때.
연구자: 그때 어떤 체험을 했어요?
한수연: 사마귀를 이렇게 손에 올려봤어요.
연구자: 사마귀를 손에 올려봤구나.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한수연: 보들보들했어요. 날개가요. (오른손을 펴고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손 위에 두고 사마귀가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며) 착착착착 착착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마귀가 팔 위로 기어가는 모습을 흉내 내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연구자: 그랬구나! 그렇게 사마귀가 손이랑 팔을 기어다닐 때 수연이 기분은 어땠어요?
한수연: 네. 너무 귀여웠어요. (웃음)

-2021. 6. 6. 판교공원 유아숲체험원
정소라의 자녀, 한수연 유아와의 심층 면접

<그림 8> 유아 참여자 한수연의 그림

이선호의 자녀인 이준우 유아는 연구자와의 심층 면접이 진행되기 3주 전에 숲 체험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이준우 유아는 연구자와 숲에서 놀이를 하는 동안 자신이 개미와 나비, 달팽이를 좋아하고 “무슨 곤충이든지 다 좋아” 한다고 말했다. 이준우 유아 참여자는 숲 체험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유아숲체험원 내에 있는 연못의 올챙이와 5월에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매미나방애벌레를 떠올리고 그것들을 그림으로 표상했다(그림 9). 다음은 연구자와 이준우 유아가 미술 활동의 시작 시점에 나눈 대화이다.

연구자: 준우는 숲 체험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준우: 애벌레 본 거. 독이 있는 벌레는 송충이예요. 송충이는 완전 털이 많이 있었어요.
연구자: 송충이는 털이 많았구나. 여기에 준우가 숲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려보세요.
이준우: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이렇게 털이 많이 있었지.
연구자: 그랬구나.
이준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게 제일 첫 번째였는데. 이걸 제일 첫 번째로 봤어.
연구자: 애벌레를 숲에서 제일 처음으로 봤구나.
이준우: 네. 독은 검은색이지. (검은색 색연필을 찾는다)
연구자: 독은 검은색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준우: 그리고 이거. 아니고 이거. 갈색? 동그란 건(몸) 갈색이지. 그다음에 주황색이랑 노랑색이 필요해요. 아, 개미 왔다!
연구자: 개미가 스케치북에 올라왔구나.
이준우: (개미를 관찰하며 웃음) 개미야! 개미야! 히히히(웃음) 개미 내려간다. 잘 가!

-2021. 5. 30.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뜰
이선호의 자녀, 이준우와의 심층 면접

<그림 9> 유아 참여자 이준우의 그림

채나현의 자녀, 김하은 유아는 유아 참여자 중 가장 어린 월령(48개월)이다. 김하은 유아는 그림을 그리기 전, 연구자와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을 주워 모으고 나뭇가지를 쓰기 도구 삼아 흙 위에 그림을 그리는 놀이를 전개했다. 김하은 유아는 월령을 고려하여 어머니인 채나현과 동행하여 미술활동을 진행하였다.

김하은 유아는 숲에서 봤던 개미와 나뭇잎, 나비를 그림으로 표상하였는데 연구자와 라포 형성 과정에서 주워 왔던 나뭇잎들을 들고 와서 “문질러 볼래”라고 말했다. 김하은 유아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종이 뒷면에 나뭇잎을 놓고, 종이 앞면에 크레파스로 문질러서 나뭇잎의 잎맥을 표현했다. 종이에 나뭇잎의 잎맥이 나타나자 김하은 유아는 미소를 보였다. 김하은 유아는 그림을 완성한 후에는 나뭇잎을 자신의 그림 위에 붙이기를 원했다. <그림 10>은 김하은 유아 참여자의 그림이다. 김하은 유아는 자신이 기억하는 나뭇잎은 초록색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표현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자연물에 대한 김하은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가 색깔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뭇잎을 자신의 작품에 붙

이고 싶다는 요구는 자연물을 친근하게 대하는 태도이며 비구조적인 자연물을 이용하여 놀이하는 태도에서 촉발된 사고의 확장으로 분석된다.

김하은 유아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돗자리 위에 개미가 여러 번 올라왔는데 개미가 올라올 때마다 부모 참여자 채나현은 자녀를 향해 “우와! 개미야 안녕!”, “하은아, 개미가 그림 위에 올라왔어!”, “개미가 주인공이라서 여기에 올라왔나 봐!” 와 같은 상호작용을 보였다.

<그림 10> 유아 참여자 김하은의 그림

김다은의 자녀인 쌍둥이 자녀들은 만 5세 반에 재원 중인 유아들이다. 평소 어린이집 외에는 특별한 사교육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에서 보내는 쌍둥이 형제는 자신이 알고 있고 기억하는 자연의 모습을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쌍둥이 형제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같은 색을 내기 위해 미술 도구의 색깔 선택에 신중했고 연구자에게 필요한 색을 요구하기도 했다.

쌍둥이 중 첫째인 민우현 유아는 지금까지 참여했던 15회 이상의 숲

체험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동식물을 모두 한 지면에 표현했다(그림 11). 큰 나무와 그 위에 앉은 까치, 나뭇잎 근처에 있던 개구리, 멀리서 본 백로, 길고양이를 표현했는데 숲에서 우연히 고양이를 봤던 경험은 부모 참여자인 김다은과의 1:1 인터뷰에서 김다은이 기억에 남는 일로 구술하였던 내용과 일치한다. 민우현 유아의 그림은 동물의 생김새가 매우 세밀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 민우현 유아는 그림 표상 과정에서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는 행동을 반복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기억하는 생명의 모습과 최대한 같은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림 11> 유아 참여자 민우현(쌍둥이 형)의 그림

김다은의 쌍둥이 자녀들 중 둘째인 민수현 유아는 자신이 숲에서 봤던 여러 가지 애벌레를 한 나무 위, 각각 다른 나뭇잎 위에 표현하였다(그림 12).

<그림 12> 유아 참여자 민수현(쌍둥이 동생)의 그림

민수현 유아는 애벌레의 크기와 색깔, 모양 등을 다르게 표현하여 분류하였고 애벌레가 갖는 각자의 특징을 연구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림의 하단 왼쪽에는 풀밭, 가운데에는 연못, 오른쪽에는 바위가 있다.

연구자는 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관찰을 통해 유아가 습득한 동식물에 관한 지식이나 자연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림 표상 과정을 통해 유아 참여자들이 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연에 대한 느낌은 어떠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유아들은 “매미나방애벌레”, “곰개미”, “일본왕개미” 등 생명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 있었고, 한강 주변의 자연물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연구자에게 적극적으로 말해주었다. 그 이야기 중에는 사실에 기반한 내용도 있었고 유아들만의 독특한 상상력으로 꾸며낸 내용도 있었다. 또한 스스로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주워와 구성 놀이를 즐기고, 기어가는 곤충에게 길을 만들어 주거나 말을 거는 등의 자연친화적 태도를 보였다.

한수연 유아가 그림을 그리며 떠올렸던, 사마귀가 손 위에서 기어가는

“보들보들” 한 촉감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해도 가장 재미있는 숲 체험으로 기억된다. 김하은 유아는 자연의 실제 색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으로 숲속 생명을 표상하고, 즉흥적으로 나뭇잎을 그림에 붙여서 작품을 완성하고자 하는 유연한 사고를 보여주었다. 이준우 유아가 갈색, 주황색, 노란색을 사용하여 매미나방유충을 표현한 것과 민수현 유아가 다양한 유충의 형태를 기억하고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 민우현 유아가 여러 번의 숲 체험에서 인상 깊게 본 동물들을 한 지면에 표현한 것처럼 유아 참여자들은 숲에서 본 생명의 형태와 색깔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표상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유아 참여자들이 종이의 가운데에 자연물을 크고 뚜렷하게 표현하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색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유아들이 숲과 숲의 생명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 참여자들은 가족 숲 체험 과정에서 오감 체험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생명과 그들의 삶을 배우고 있었다. 자연을 신체 감각으로 탐색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은 유아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연은 재미있는 곳이며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그날 자연이 허락해준 생명에 감사하며 유아의 눈높이에서 자연을 안내하는 유아숲지도사의 태도는 유아 참여자들의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더욱 고취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유아가 자연을 만날 때 부모나 유아숲지도사처럼 곁에서 자연의 느낌을 공감해주는 어른의 존재는 높은 환경 감수성을 길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분석된다.

나. 자유와 놀이 누리기

유아숲체험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숲 체험은 유아들에게 자유와 놀이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 참여자들은 숲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마음껏 뛰어놀며 내면의 욕구를 밖으로 표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자유와 놀이는 유아 동반 가족 대상의 숲 체험 프로그

램 내에서도 누릴 수 있는 가치이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가족들이 숲에 머무를 때 더욱 빛나기도 한다.

정소라: 거기 숲 체험 하는 곳에 숲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교 공원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등산을 하고 숲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도시락 싸가서,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니까, 도시락 싸가서 먹었던 기억도 있고요. 주로 통나무 올라가기. 통나무 올라가기랑 밧줄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걸 좋아하고. 저희 아이는 매달리는 거 좋아해서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좋아해요. 산성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에 큰 메뚜기 모형이 있거든요.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선호: 확실히 전보다 잘 즐기는 것 같아요. 노는 재미도 있고요. 숲에서 하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고요. 그날 준우가 숲 체험에서도 준우가 제일 좋아한 것은 밧줄다리거든요. 준우가 숲 놀이터에서 놀았던 거요. 거기서 다른 아이들도 오래 놀고 갔는데 준우는 되게 더 오래 놀았어요.

김다은: 안산 도시자연공원 갔을 때는 거기는 좋았던 게 연못이 중간에 있는데 그 연못에 두꺼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두꺼비랑 개구리랑 두 종류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그거를 막 잡아보면서 두 종류가 다른 것도 알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오늘의 숲 체험 종료되었습니다~ 하면서 가셨는데 채망, 잠자리채같은 거 있잖아요. 개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집에서 가져갔어요. 유리그릇 같은 것도 들고 가고요. 애들이 거기서 두꺼비랑 개구리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되게 오래 놀았어요. 오래 잡고 놀았고.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아이들은 그 자유시간을 즐거웠던 기억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김다은: 황토길은 그냥 일단은 다른 숲이나 이런 데는 잘 없는 건데 그런 황토 체험을 했다는 자체가 좋았고 그리고 애들이 그냥 약간 살짝. 그 전이나 좀 비가 왔었나. 그래서 물웅덩이 같은 것도 있고 해가 지고. 그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갔는데 셋이서 되게 재미있게 잘 노

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잘 노는 모습 보는 게 엄마로서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옆에 이제 황토길 체험을 했으니까 발을 씻으라고 족욕장 해 놓으신 것도 좋았어요. 애들도 그런 게 있다는 거 자체를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족욕장에서 제가 아이들 발 씻겨주고 신발 신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즐거워하고 저도 즐겁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애들이 되게 많이 웃고 오래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채나현 또한 최근 자녀와 함께 가족 숲 체험을 했던 장소에서 멀지 않은 시냇가 근처에서 자유롭게 놀이하는 시간을 가진 경험이 있다. 얕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자녀는 또래 친구들과 같이 놀이를 하고, 엄마들은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채나현: 저는 같이 체험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하은이는 거기서 만난 5살 친구와 7살 언니와 놀았어요. 그렇게 셋이서 상호작용을 했는데, 그렇게 셋이 노니까 제일 나이가 많은 언니가 설명을 해 주고 동생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 한 마디씩 덧붙이는 식으로 놀더라고요. 예를 들어 언니가 이거 무슨 모양이야? 물으면 아이들이 하트 모양이야! 하면서 상호작용했던 것 같아요.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놀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현장 답사를 통해 살펴본 유아숲체험원은 넓은 공간에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놀이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유아들은 통나무 다리, 밧줄 놀이터, 모래 놀이장, 오르기 나무, 연못 등에서 실내에서 제약받았던 움직임의 욕구를 해결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인위적으로 만든 놀이시설이 없는 숲이라 할지라도 나무껍질, 낙엽, 흐르는 시냇물, 연못 등 숲속의 놀 거리는 무궁무진하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교재, 교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숲은 자연이 준 훌륭한 교구로 가득했다.

다. 사회성 발달

유아 참여자들은 유아숲체험원에서 가족 숲 체험을 하며 비슷한 연령대의 유아들을 만난다. 비록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같은 친구를 또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매회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

정소라는 자녀가 숲 체험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안정감을 형성하고 또래에 대한 배려심을 길렀다고 생각한다. 숲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처음보는 유아 가족들과 같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으며, 이후 재신청하는 가족들이 같은 숲 체험 프로그램에서 한 번 더 마주치면 정소라의 자녀는 친구란 “또 만날 수도 있는” 존재라고 인식한다.

연구자: 숲 체험을 통해서 자녀가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소라: 배려요. 친구들 사이에 갈등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수연이가 갈등 상황을 그렇게 잘 이겨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거든요. 여자아이들은 단짝 친구 만들어서 배제시키기도 하는데, 수연이는 다 같이 잘 논다고 하더라고요.

정소라: 왜냐면 여기 숲에서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다 모르는 친구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친해져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르는 친구라고 ‘아 얘랑 나는 모르니까 서먹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도 친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친구랑 만나서 놀고, 다음에 또 숲 체험하는 곳에서 만나면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더라고요.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이에요. 이번에 단짝 친구가 이사를 가서 많이 속상해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채나현은 앞서 ‘나. 자유와 놀이’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가 숲에서 처음 만난 또래 유아와 기존에 알던 유치원 친구와 재미있게 놀이를 했다고 말했다. 그날 채나현의 가족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치원 친구와 숲 체험 프로그램에서 만난 유아 참여자 한 명은 부모들의 특별한 개입 없이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았다”. 채나현은 자녀가 숲에서 친구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친사회적 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채나현: 저는 같이 체험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하은이는 거기서 만난 5살 친구와 7살 언니와 놀았어요. 그렇게 셋이서 상호작용을 했는데, 그렇게 셋이 노니까 제일 나이가 많은 언니가 설명을 해주고 동생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 한 마디씩 덧붙이는 식으로 놀더라고요. 예를 들어 언니가 이거 무슨 모양이야? 물으면 아이들이 하트 모양이야! 하면서 상호작용했던 것 같아요.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놀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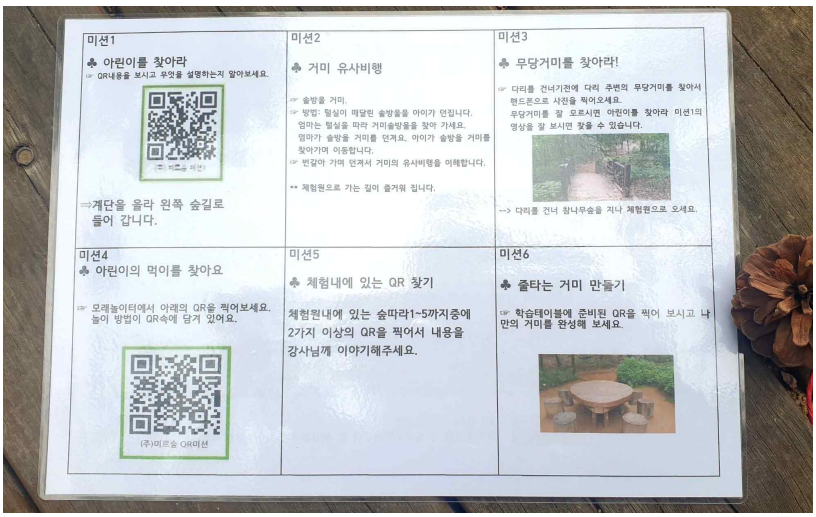
채나현: 요즘에 사회적 관계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때나마 개방된 장소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같은 유치원을 다녀도 외부로 체험 학습을 못 나가잖아요. 우연히 같이 신청해서 같이 밖에서 놀 수 있어서 좋았어요.

채나현은 숲 체험이 문제해결능력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숲은 미리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유아숲지도사는 새로운 일들에 대해 유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거나 함께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채나현: 저희 아이가 또래에 비해 엑시던트에 대해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얘가 얼음이 되어 있더라구요. 친구가 자기 물건을 가져가도 달라고 하지도 않고 화도 안내고 그냥 얼음! 그래서 놀랐거든요. 부모가 안 그런데 왜 그러지? 하구요. 숲은 계속 엑시던트가 일어나잖아요. 상황이. 이전에 일어났던 경험이 아닌 새로운 엑시던트가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김다은은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인해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서 다른 가족과 특별한 상호작용은 없었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지자체의 숲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대면으로 실행은 하되 개별 가족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가족들 단위로 숲에서의 미션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13).



<그림 13>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가족 미션 활동지 (사진: 연구자)

따라서 김다은의 자녀들은 처음 만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많지 않았지만, 같은 연령대의 자녀를 둔 지인 가족들과 유아숲체험원에서 보냈던 시간은 매우 즐거웠던 시간으로 기억한다. 쌍둥이 자녀들과 지인의 자녀, 이렇게 셋이서 “황토길”과 “물웅덩이”에서 긴 시간 동안 놀이를 즐겼다는 것은 유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 유아를 배려하는 등의 사회적 기술을 사용했다는 의미이다. 유아들이 놀이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고 공고화하면 사회성은 자연스럽게 발달한다.

부모 참여자들의 구술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유아 참여자가 숲에서 얻는 덕목은 자연친화적인 태도, 자유와 놀이, 사회성 발달로 나타났다. 유아는 숲에서의 오감 체험을 통해 자연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자연을 즐기는 태도를 형성하였으며 숲에서 자유와 놀이의 욕구를 충분히 누렸다. 더불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기존에 알던 친구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였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향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접촉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다른 가족과의 만남이 어렵지만, 본래의 숲 체험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되면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유아 참여자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와 자연에서 놀이를 즐기는 장면, 또래와 활발하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만, 선행연구에서 유아 숲 체험의 효과로 밝힌 창의력, 과학적 탐구능력, 주의집중력 등의 향상은 부모 참여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창의력, 과학적 탐구능력, 주의집중력 등의 정신 능력은 단기적인 행동 관찰을 통해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유아의 생활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유아의 성숙(成熟)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부모 참여자가 숲 체험으로 인한 결과로 인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놀이'는 이러한 정신 능력들의 향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놀이'는 유아들이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로써, 특히 자연물처럼 비구조화된 발산적인 놀잇감을 갖고 노는 유아는 수렴적인 놀잇감을 갖고 놀이하는 유아보다 창의성이 높고, 직접 사물을 관찰하고 다루어 보는 과정을 통해 물리적 지식을 학습하며, 물리적 지식의 증가에 따라 인과 관계를 파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논리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신은수 외, 2010). 따라서 부모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자주 목격한 자녀의 자유로운 놀이 장면은 창의력과 과학적 탐구능력, 주의 집중력 등의 인지 발달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부모가 숲으로부터 얻는 교육적 의미

1) 자연친화적 태도 함양

부모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직접 자연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는다. 그들은 숲의 살아있는 생명을 느끼고 새로움과 신비함을 경험한다.

정소라는 숲에서 직접적인 체험과 자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새로움과 놀라움을 느끼며 이를 “힐링”으로 여겼다. 정소라는 숲의 향기와 소리에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는다. 또한 그녀는 씨앗은 “사소한 것들”이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알았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느낌”까지 든다. 정소라는 “무심코 다 지나왔던”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서 자연의 신비함을 느낀다.

> 정소라: 저는 숲에서 나오는 향기, 특유의 향기, 그리고 새소리랑 이런 것들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듣게 되더라고요. 네, 숲을 한 번 더 살펴볼 때가 많아요. 주변에 청솔모가 있는지 다람쥐가 있는지 한 번 더 쳐다보고, 네. 그런 거를... 힐링한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웃음)

> 정소라: 책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아이가 보는 책 중에 ‘씨는 어떻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볼 때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직접 제가 숲에서 보고 경험을 하니까, 아 다르구나. 몸소 느끼는 건 책으로 볼 때랑 다르더라고요.

채나현은 “직접 만지거나 체험하는” 경험이 일상에서 “너무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숲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체험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높아져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녀가 말하는 인식이란 자녀가 진흙을 밟고 만지거나 낙엽을 주울 때 자연과 교감하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채나현은 자기 자신이 자연 체험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녀는 가족 숲 체험 과정에서 유아

숲지도사로부터 자연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지만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정의적인 면에서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태도의 함양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채나현: 아이의 머리만 보지 않고 따라가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숲 체험의 가장 장점은 교실 수업과 달리 내가 꼭 봐야 할 것만 봐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내가 볼 수 있는, 그 날의 자연이 주는 행운을 내가 만날 수 있고. 이것만 봐야 돼가 아니라 넓게 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게 저도 되게 좋았던 거였어요. 말로만 가르쳐주는 것보다 비형식적인 것들이 가르쳐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채나현: 저도 같이 참여하면서 나무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향을 느끼는 방법도 저에게는 되게 생소하게 다가왔어요. 긴 잎을 문질러서 향을 맡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한 번 좋다고 생각되니까.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채나현: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게 진짜 목적이라면 사실 다른 장소에서 단시간에 하는 게 훨씬 효율이 높으니까요. 그것보단 확실히 태도적인 부분은,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숲에 대한 태도를 함양하겠다! 이것보다는 당장 숲에 가서 경험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태도를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김다은은 “사계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아”졌다. 또한 스치듯 지나가는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태도가 생겼다. 유아숲지도사가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는 모습과 쌍둥이 형제 자녀들이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점점 그녀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다.

김다은: 그런 계절의 변화들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낙엽이 떨어져도 낙엽을 줍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쳐다보면 좋은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뭔가 숲 체험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애들이랑 그거를 좀 더 땅에서, 땅 가까이 이렇게 자세

히 보게 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김다은: 애들한테 배운 거기도 하고 숲 체험 선생님한테 배운 거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바닥을 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좀, 나무줄기에 뭐가 있나 이런 걸 보기도 하면서 가는 거를. 네, 그런 태도를 배운 것 같아요. 저도 따라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2) 인간과 자연의 공존 관계 자각

부모 참여자들은 숲 체험을 통해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해 자각하게 된다. 채나현은 유아숲지도사로부터 산에 야자매트(코코매트)[18]를 시공하는 이유를 듣고 친환경적인 자연 원료로 만든 매트가 숲의 보존과 더불어 숲을 찾는 이들에게 쾌적한 등산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인간이 교육, 산책 등의 적절한 목적으로 숲을 찾는 것은 숲의 보존과 발전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채나현: 아까 말했던 도토리나무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산에 가면 바닥에 지푸라기로 까는 거 있잖아요. 흙 위에 지푸라기 엮은 것을 산책로에 깔아놓는데 그걸 까는 이유가, 그걸 깔아야만 사람들이 거기로만 가기 때문에 길이 넓어지지 않는대요. 그걸 깔지 않는 등산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가기 때문에 길이 넓어지고 숲이 좁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까는 게 인위적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연의 원료로 만들어서 깔아서 숲을 보존하는 거래요. 숲을 보존하면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새로 알게 되었어요. 그런 걸 까는 것이 자연적이지 않고 인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깜으로써 인간의 편의도 높이고 숲을 보존하는 거라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

18) 산림의 토사유실과 세굴 현상, 등산로 노면의 훼손 방지 등을 위해 천연 야자수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섬유질로 직조된 제품. 야자매트에 대한 연구물을 찾기가 어려워 야자매트를 판매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출처: 천연소재 친환경 야자매트 이야기(https://blog.naver.com/sapoda)

채나현: 관리 기관에서 나무를 심더라고요. 선생님이 이건 이번 3월에 심은 나무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숲을 많이 찾으니까 식수도 더 많이 이루어지겠죠. 예전에는 제가 숲을 찾아가는 게 훼손의 일부, 소비는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소비적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음으로써 숲이 더 잘 보존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많이 찾으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숲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전문가들도 더 모일 수 있으니까요. 내가 숲에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느낀 거죠.

김다은은 유아숲지도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부적절한 활동으로 인해 숲에 사는 동물들이 피해를 입으면 결국 인간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김다은은 평소에도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었고 “참여”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가족 숲 체험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찾은 숲에서 유아숲지도사로부터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자신과 숲, 자연과 인간의 상생 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김다은: 거기에 병충해가 많다고 하셨나. 환경 오염이랑 관련해서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거기 숲에 있는 동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환경 오염이랑 연결되면서 걔네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멧돼지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랑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환경 보호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있었고 이제 지구, 지구 사랑 이런 거를 그래도 최대한 내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해 주시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충이, 그 벌레가 옛날보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긴 팔을 입고 와야 된다고 하셨어요. 벌레가 옛날보다 훨씬 독하다 이런 얘기해주셨어요. 어~ 그렇구나. 환경 오염이 결국 우리한테도 피해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도 있지만 대부분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춰진 프로그램이다. 특히 교

육내용은 유아들이 다양한 자연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대부분의 유아숲지도사들은 유아의 생태 경험을 최우선으로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채나현과 김다은의 구술 내용에 따르면 유아숲지도사가 숲의 환경과 관련된 지식을 성인인 부모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숲지도사들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은 부모 참여자로 하여금 나과 숲,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양육효능감 향상

부모 참여자들은 가족 숲 체험을 계획할 때부터 시작하여 아이 손을 잡고 숲을 향하는 순간과 숲 체험에 참여하는 시간, 이후 가족들만의 자유로운 숲 놀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부모 양육 행동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행동 관찰은 자녀의 발달 상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부모 양육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정소라는 숲 체험 과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자녀에게 집중하여 자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자녀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며 적절하게 대처한다. 또한 정소라의 배우자는 숲에서 아버지로서 수행하는 역할 비중이 어머니인 정소라에 비해 매우 높고,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족들과 숲에 가는 것을 즐기고 있다.

> 정소라: (자유시간에는) 아이를 보고 있거나 같이 남편이 놀아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요.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빠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무서워서 못 내려오면 아이를 안고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바퀴 모양 있잖아요. 타이어 위에서 놀 때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바퀴가 바닥에 박혀 있고, 아이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손을 잡아 줘야 할 수 있으니까.

정소라는 자녀가 숲 체험에서 재미있었던 느낌을 표현할 때 엄마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자신이 “알아보고 데려갔는데” 자녀가 “예상대로 좋아하니까” 만족감은 더욱 커진다. 그녀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러한 감정을 ‘양육효능감’이라고 부르는데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낼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양육 행동이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는 기대감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2000). 양육효능감은 이후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재신청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정소라: 아이가 “아 그때 숲 체험에서 이런 게 너무 좋았어!” 하고 말해 줄 때, 아, 내가 아이를 숲에 참 잘 데려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소라: 밤에 자기 전에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오늘 이게 재미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또 뿌듯하고 그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더 자주 왔을 것 같아요. 남편도 숲 체험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말해요.

이선호는 스스로를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하는 아버지라고 평가하지만 주말에 집에 있으면 “부모들은 눕고 싶어지”므로 가족에게 의미 있는 활동은 잘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숲에서는 공간적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아버지가 된다. 또한 그는 자녀들과 산에서 여가를 보내면서 자녀가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 동물인지 식물인지, 동물 중에서는 어떤 종류인지, 첫째와 둘째 아이는 어떻게 다른 성향을 보이는지 등 자녀의 발달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자녀에 대한 높은 이해는 결국 바람직한 양육 태도와 기술로 이어진다.

이선호: 숲길을 가다가 동물 같은 것이 나오면 아이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빠인 저로서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것이죠.

이선호: 선생님이 “털 있는 애벌레는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가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준우는 식물보다는 움직이는 동물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선호는 자녀들과 숲을 찾을 때 자녀와 “같이 걷는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산을 정복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계획을 하며 가족과 같이 걸음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실천한다.

이선호: 가족하고 같이 다니면서요. 음.. 아무래도 저는 예전에 정상 정복이나, 코스를 완주한다는 것에 집착하고 그랬을 텐데. 애들이랑 숲에 가면, 이제 이 숲길을 애들이랑 같이 걷는다 이런 생각에 목적을 두고서, 코스를 완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매달리는 것을 내려놓고, 짧은 코스로 애들이랑, 그러니까 가족이랑 갈려니까 짧은 코스로 계획을 짜게 되고요. 애들한테 무리가 안 가게 하죠.

김다은의 가족 역시 가족 숲 체험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을 느낀다. 김다은은 주말에 숲에 가기 위해 계획하는 것부터 부모로서 “내가 잘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김다은은 자녀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할 만큼 적극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김다은: 몸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만 있으면.. 약간 자책감이 들어요. 스스로를 위한 것도 없고, 아이들을 위한 것도 없으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병적이라는 생각도 하는데. 주말에 이렇게 사는 게 삶의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중을 버틸 수 있고,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줘야 내가 엄마로서 뭔가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김다은 가족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수행 행동이 특히 두드러진다. 김다은의 배우자는 시골에서 성장한 배경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자연을 즐기는 태도가 강한 편인데 쌍둥이 자녀들은 숲에서도 “아빠가 그런 걸 좋아하고 잘 한다는 걸 아니까 아빠한테 많이 얘기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한다. 쌍둥이 자녀들은 어머니인 김다은에게는 주로 “식물 이름 물어보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뭔가를 잡고 몸으로 노는 건 아빠한테 얘기하는 편”이다.

채나현은 부모가 부모다운 역할을 더욱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숲이 한다고 생각한다. 숲이 “감정의 그물” 망을 넓혀주므로 굳이 애쓰지 않아도 편안한 상태로 자녀의 행동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나현: 아무리 날카로운 어머님이라도 숲에서는 소리를 지르시지 않는답니다. (웃음) 내가 편안할 때는 감정의 그물이 헐거워서 모든 게 다 빠져나가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그물이 촘촘해서 뭐든지 다 걸린다고요. 나의 감정 그물을 헐겁게 해주는, 나를 싸고 있던 방어기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숲이 하는 것 같아요.

채나현: 숲에 가면 확실히 점수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음 키즈카페 가면 아이가 한껏 놀아야 제가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숲에 가면 아이가 한껏 놀지 않아도,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굳이 결과물을 내지 않아도 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이 낮아지니까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 같고. 저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채나현의 경우, 다른 가족 참여자들과 달리 숲 체험 프로그램에 배우자와 함께 참여한 경험이 없는데, 현재 배우자가 연중무휴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나현의 배우자가 상황적 한계로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역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좋은 경험을 자녀와 함께 해야 한다는 “부채감”을 갖고 있고, 나중에는 자녀와 둘이서 혹은 가족이 함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채나현은 혼자서 배우자의 양육 몫까지 감내하며 자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이를 부정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스스로 즐기고 있다. 채나현은 자녀와 자주 방문하는 초막골생태공원 유아숲체험원의 주차장에 있는 많은 차를 보면

서 부모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또한 그녀는 부모가 자녀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므로 더욱 노력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

채나현: 제가 자주 가는 곳 중에 초막골생태공원 안에 숲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평일 오후에도 자주 가는 편인데요. 거기서 많이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면, 아, 나도 부모 노릇을 더 가열차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웃음) 다들 노력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채나현: 타임 리밋이 있다. 지금 아이가 다섯 살인데 11살 12살이 맥스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더 많이 다니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해주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부모 참여자들은 숲 체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는 예기치 않게 우연히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실행하였다. 부모 참여자들은 가족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며 숲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숲 체험을 자발적으로 직접 신청하고 같이 참여한 부모 자신에게도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부모로서 자신의 양육 행위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양육효능감’이라고 한다. 양육효능감은 반두라가 구성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Bandura, 1977) 인간이 특정 행위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1997). 신용주와 김혜수(2003)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부모가 적절하게 자녀의 양육, 교육 및 훈육을 담당할 때,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고 또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자신이 부모로서 자녀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과 자신의 자녀 양육 방식이나 역량에 대해 자신이 있다.

가족 숲 체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아버지의 양육 수행의 빈도와 질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365일 근무 형태를 띠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채나현을 제외하면, 이 연구에서 유일한 아버지 참여자인 이선호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숲 체험을 예약하고 자녀와 둘이서 참여했으며, 김다은과 정소라는 숲에서 배우자의 역할 비중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유아 참여자들도 숲에서의 적극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었고, 실제로 숲에서 생긴 호기심을 해결하거나 신체적인 활동, 생태놀이 등을 할 때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 전체가 숲으로부터 얻는 교육적 의미: “공통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화목한 가정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나무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가족 숲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며 더욱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숲 체험 자체는 물리적 장소와 정해진 시간 내에서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만, 가족들의 ‘이야기’는 장소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된다.

정소라: 다 같이 가족끼리 오니까 더 화목해져서 애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하니까, 할 얘기도 많아지고 좋더라고요.

이선호: 산에 있는 동안은 꾸준히 대화하고, 말을 안 하다가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대화할 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녀와서 모두의 공통의 경험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좋죠.

채나현: 말을 하는 게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자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잠자리 독서 같은 걸 할 때도 아무래도 아이들 그림책에서 동물이나 식물들이 스토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채나현: 남편도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숲으로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아이가 만족한 체험에 대해서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족 전체한테, 저희 일상의 일부로 녹아 있는 느낌이구요.

김다은: 숲 체험 가면은 제가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같은 걸 볼 수 있고, 산에 어떨 때는 고양이가 나타나고 고양이도 같이 보고 얘기하고. 집에 와 가지고 그 고양이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선호는 “애들이랑 같이 산에 가고, 같이 숲길을 걷고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충분히 즐거운 경험이”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숲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족 구성원이 서로 도우며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선호: 환경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걸, 크든 작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뭐 같이 이 코스를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가벼운 도전이 되고, 그 안에서 잠깐의 코스가 힘들고, 다음에 이제, 길이 안 좋아지면 서로 손도 잡아주면서 도와줘야 되고, 산만한 아이들이 제대로 따라오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이제 같이 해결하고 그 과정을 같이 체험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소라의 가족은 유아숲체험원에서의 숲 체험에서 느낀 만족감이 또 다른 가족 단위의 활동 계획으로 연계되어 경험이 확장되기도 한다.

정소라: 숲 체험은 가족이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좋아서 우리 또 주말에 이런 것도 같이 하자, 저런 것도 같이 하자 이렇게 다른 계획도 세우게 되고요. 애도 더 좋아하고. 가족이 다 같이 노는 걸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정소라는 숲 체험을 통해 온 가족이 “힐링” 받는 느낌을 받고, “변화” 하였으며 “가족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정소라: 하여튼 여기가 많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하는 걸 배운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모르는 사람과도 만나고, 만나서 같이 숲 체험 선생님 따라가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도 화목해지고요. 가족들 화목해지는 역할에 숲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 숲 체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체험의 계획, 실행, 평가 단계에서 가족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이 함께 여가 활동을 계획을 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나타나 좋은 가정교육의 장이 된다는 연구와(Kelly, 1983) 도시숲을 활용한 가족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가족응집력 및 가족 관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박숙현과 박봉수, 2018)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족 숲 체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자연스럽게 주변 지인들과의 공유로 이어진다. 참여자들은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간단히 알리는 방법으로 추천하거나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동일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에 지인을 데려가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한다. 부모 참여자들은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집단을 만나면 주로 교육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는데, 정소라는 주변 지인들에게 숲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추천했으나 “딱 한 명만 갔다고” 밝혔다. 그녀는 “한 번 가본 분은 되게 좋았다고 추천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알려줘도 잘 안” 갔고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한다. 채나현은 지인으로부터 자녀가 요즘 어떤 체험을 주로 하는지 질문을 받으면 “무료이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 되어 있어요. 한 번 참여해 보세요” 라고 추천하지만, 그들

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조심스럽다. 참여자 중 숲 체험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가장 많은 김다은은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키우는 친한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하거나” 좋은 체험임에도 자리가 한 두 자리 남아있으면 자발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올리”며 홍보한다. 이처럼 부모 참여자들은 숲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다른 가족들에게 추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가족 숲 체험의 참여 대상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숲 체험을 추천받은 이들 중에서 소수의 가족만이 숲을 찾는다는 사실은, 앞서 설명한 부모들의 내적 동기의 유무와 강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제 3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참여자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가족 숲 체험의 내용을 알아보고 가족 숲 체험이 부모와 유아 참여자에게 주는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지 탐구해 보았다.

참여자들이 가족 숲 체험 과정에서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는 숲 체험의 내용 요소는 부모-자녀 간의 질 높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활동,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자연 체험, 혹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반영하는 활동이다. 김다은은 숲에서 자녀와 “고라니 똥”을 찾으며 자녀와 멀리까지 둘이서 숲 주변을 돌아다닌 일을, 이선호는 숲 놀이터에서 자녀와 “밧줄 다리” 놀이를 하며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던 시간을 의미 있는 체험으로 여겼다. 또한 정소라는 자녀와 같이 “박주가리 씨”를 날리면서 서로의 행복한 모습을 보았던 순간을 의미 있다고 여겼고, 채나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녀와 “천천히 걸었던 경험”을 귀하게 여겼다. 이러한 숲 체험 내용들은 참여자들이 사전에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장면으로 새로움, 놀라움, 재미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 참여자들은 자녀와 함께 같은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을 체험하면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깊은 정서적 교감을 경험했다.

가족 숲 체험에 2년 이상 참여해온 참여자들은 씨앗, 거미, 새, 진흙 등을 오감으로 느껴보는 체험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씨앗, 거미, 새, 진흙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물이지만 숲 체험 중에 만나는 그것들은 새로운 의미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은 숲에서 자녀와 함께 작은 생명의 삶을 조명하고 그 삶의 일부로 다가간다.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나에게 날아온 곤충, 내가 밟고 있는 흙이 아닌, 숲속 생명들의 삶 속에 내가 잠시 들어간다는 관점이다. 참여자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자연을 들여다보며 새로움과 신기함을 느낀다. 동식물 관찰 체험에는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나무로 빽빽하게 에워싸인 신비로운 공간과 숲 프로그램을 이끄는 전문가의 존재, 학습자의 입장으로 나란히 선 부모와 자녀가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꾼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일상에서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다양한 생명체를 가까이에서 몸소 체험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발적으로 이색적인 체험을 만들어 나간다.

숲이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교육적인 의미는 유아, 부모, 가족 전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유아에게 숲은 풍부한 오감 체험을 제공하며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부모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책에서 보던 그림과 글 내용을 직접 눈앞에서 관찰하고, 만져 보며, 냄새 맡고, 들어 볼 수 있는 것을 숲 체험의 가치로 여겼다. 유아 참여자들은 숲 체험 과정에서 숲에 사는 동식물을 직접 경험하며 유아숲지도사로부터 그들의 생활 세계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유아 참여자들은 “사람이 거미를 해치면 안되니까 거미줄 밑으로 기어 가려고 노력하고”, “다람쥐가 먹을 거니까” 도토리를 숲에 그대로 두고 오며, 거미나 사마귀를 실제로 만져보면서 “무서워 보이는 곤충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한다. 유아 참여자들 중에는 장래희망으로 “숲 체험 선생님” 을 꿈꾸는 유아도 있었다. 이렇듯 부모 참여자들이 본 유아 참여자들은 다양한 생명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며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유아들의 자연친화적 태도의 함양은 단지 숲의 공간적 특성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부모 참여자의 구술에 의하면 유아기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유아의 눈높이에서 자연을 설명하며 함께 놀라움을 표현해주는 유아숲지도사의 태도가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를 더욱 고취시킨다.

가족 숲 체험은 유아들에게 '자유와 놀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참여 가족들은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같은 장소에 남아 가족들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유아숲체험원은 자연적이고도 개방적인 공간에 유아들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놀이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유아 참여자들은 통나무 다리, 밧줄 그네, 밧줄 다리, 모래놀이터, 해먹 등의 시설에서 실내에서 제약받았던 움직임의 욕구를 마음껏 누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또한 지천에 널린 나뭇가지와 모래, 돌, 풀, 나무 등의 비구조화된 놀잇감은 유아가 놀이에 더 집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가 되었다. 유아 참여자들은 일명 '숲 놀이터'라 불리는 유아숲체험원에서 자발적으로 놀이를 선택하고 즐기며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유아 참여자들에게 숲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장소로 의미가 있다. 유아 동반 가족 대상 숲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만 3~5세의 유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유아 참여자들은 숲에서 같은 또래의 유아들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 유아 참여자는 숲 체험 과정에서 처음 보는 또래와 함께 유아숲지도사의 지도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는다. 부모 참여자들이 지인 가족에게 동일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같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유아 참여자들이 이미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같은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숲이 부모들에게 주는 의미는 자연친화적인 태도의 함양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 관계에 대한 자각, 그리고 부모로서 양육효능감의 향상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보호자로 참여했지만,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숲 체험을 통해 자연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이 생겼고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또한 유아숲지도사로부터 야자매트의 시공 이유, 식수의 효과, 병충해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과 인간의 상생 관계를 깨닫는다.

부모 참여자들은 숲 체험을 통해 양육효능감이 향상되었다. 그들은 숲 체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녀의 걸음 속도에 맞춰 발걸음을 옮기고 자녀가 흥미로워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보여준다. 부모 참여자들은 자녀를 관찰하고,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며, 놀이를 지원하고 공동 놀이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부모 참여자들은 숲에서 유아가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육효능감을 느낀다. 특히 숲에서는 부모 참여자 중 아버지의 양육 역할이 적극적으로 실행된다는 특징이 있었다.[19] 이선호는 자녀와 단둘이 숲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직접 지자체 산림복지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는 적극성을 보였고, 정소라와 김다은은 가족 숲 체험 시 자신보다 아버지인 배우자의 역할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숲은 유아들의 호기심과 신체적 움직임의 욕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장소이므로 아버지의 양육 동기나 능동적인 양육역할 실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숲에서의 아버지와 자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최근 우리 사회가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를 기대하고 있고(이숙현과 권영인, 2009; 허영림 2006), 남성들 자신도 아버지의 정체성을 갖고 자녀 양육 역할에 가치를 두며 양육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실(Pleck, 2012; 이은실과 최혜영, 2009)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숲 체험 과정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나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는 심리사회 발달단계론(Erikson, 1993)나 생애발달이론(Havighurst, 1948)에서 주장하는 유아 단계의 발달과업이며, 자연에서의 오감 체험과 자유로운 놀이는 유아의 발달과업 성취를 촉진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부모가 숲 체험 과정에서 느끼는 양육효능감 역시 성인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인 ‘육아능력’을 촉진하는 심리적 요소이며, 자연친화적 태도의 향상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 관계 인식은 이 시기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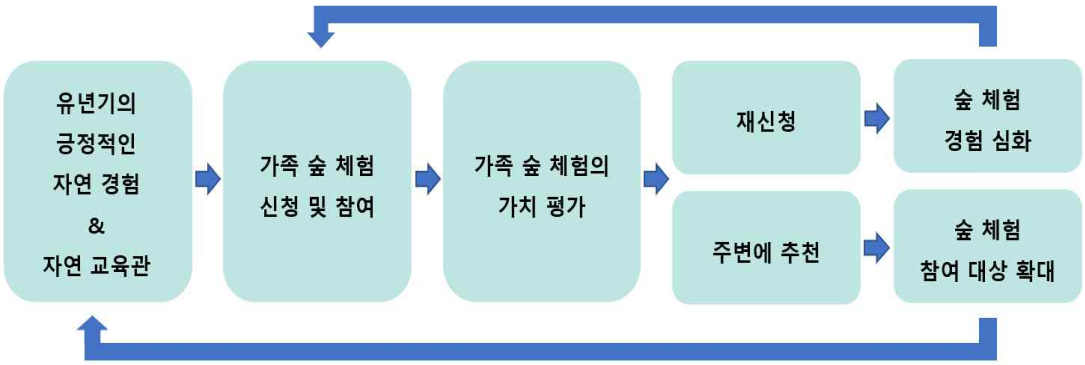
19)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접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 사회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고(이숙현과 권영인, 2009; 허영림 2006), 아버지의 양육시간이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이영환, 2012)는 선행연구에 비춰봤을 때 숲에서의 아버지의 양육 행동은 유의미한 발견이라 판단하여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였다.

과업인 성숙하고도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바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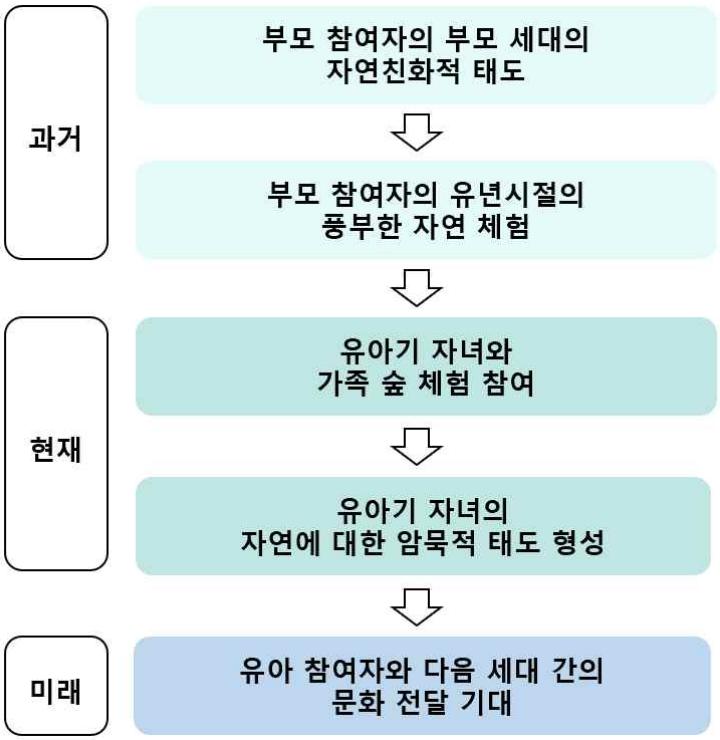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가족 전체에게 숲은 가족 “공통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개로 의미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가족들과 숲에서의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며 가족 간의 화목과 행복감을 경험했다. 의사소통은 주로 가족 내에서 시작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 성격 및 대인관계를 형성한다(이원숙, 2012). 특히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일반적인 의사소통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부모와 자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면 자녀의 자아개념 및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자녀의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윤정과 권순희, 2015). 채경선과 황현주(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친밀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자녀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화 속에서 표현과 공감이 증가할수록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론적 탐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inott(1968)의 인본주의 부모교육론에서도 아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비춰보았을 때 이 연구에서 가족 참여자들이 숲에서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만졌던 경험을 소재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가족의 건전한 공통적 가치관 확립과 행복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가족의 공통의 경험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이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환경행동’와 관련해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해 합의점에 이르거나 공동의 가치관을 토대로 ‘함께 실천’하는 모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숲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으로 인해 가족 숲 체험에 재신청을 하거나 또 다른 가족 단위의 자연 체험 활동으로 경험을 심화시켰으며, 지인들에게 비공식적인 추천을 통해 자발적으로 숲 체험의 참여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추천을 받은 지인들 중 소수만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제 3 장에서 설명한 개인의 내적 동기의 유무와 강도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 참여자의 가족 숲

체험 참여의 동기부터 실제 숲 체험 참여, 재신청 과정, 그리고 이들의 추천을 통한 숲 체험 참여 대상의 확대 과정은 <그림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숲을 비롯한 자연에서의 체험은 부모 참여자의 위 세대부터 자식 세대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대하고 즐기는 태도와 관련된 '문화 전달' 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지속적인 가족 숲 체험은 훗날 미래세대 간의 자연을 찾고 즐기고자 하는 문화 전달 동기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그림 15).



<그림 14> 가족 숲 체험의 참여 과정



<그림 15> 가족 내 세대 간 자연 체험의 문화 전달

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유아 동반 가족 대상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숲 체험에 참여하게 된 내재적 동기와 의미 있었던 숲 체험 내용을 파악하고 가족 숲 체험이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교육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네 명의 부모 참여자들과의 1:1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심층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 참여자들의 자녀인 유아 참여자들과의 면접과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병행하였다.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문명화된 현대 사회가 유아를 자연에서 놀 권리를 박탈해 갔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수십 년째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현대의 환경적 위기에 관한 것이다. 기후변화, 산림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해양오염 등 범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환경문제를 인식한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고 그 중 일부만이 행동한다.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 감수성과 생태적 소양을 갖춘 시민의 양성이 중요한데 유아기는 인간의 발달주기에서 가변성이 높고 태도 형성의 결정적 시기이므로 환경 감수성 함양에 있어서도 적기가 될 수 있다.

연구 분석 결과, 부모 참여자들은 그들의 유년시절에 부모와 함께한 긍정적인 자연 경험과 현재의 자녀교육관이 내적 동기로 작용하여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부모 참여자들은 그들의 부모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에 산과 바다, 강가를 자주 오갔으며 자연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의 축적은 그들이 애써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은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했다. 부모가 된 지금에 와서 과

거를 돌이켜 보면, 당시 당연시했던 자연 체험들은 그들의 부모가 어린 그들에게 베푼 배려이자 자연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였다. 부모 참여자들은 자연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 주었던 그들의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이 경험했던 '좋은 것'을 부모가 된 현재 '옳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부모 참여자의 유년시절의 자연 경험은 가족 숲 체험이라는 활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매우 강력한 내재적 원천으로서 작용하였다.

부모 참여자들의 현재의 자녀교육관은 가족 숲 체험 선택에 보다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부모 참여자들은 유아기의 자녀와 민주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유아기부터 과도한 학습을 시키는 사회적 현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자녀가 '자연'과 같은 직접적인 체험들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본인들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이 어린 시절에 누렸던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자녀와 함께 재현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었다. 부모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을 향한 욕구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로 '숲'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가족 숲 체험 과정에서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는 숲 체험의 내용 요소는 부모-자녀 간의 질 높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활동,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자연 체험, 혹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반영하는 활동이다. 부모 참여자들은 자녀와 함께 숲속의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체험하면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깊은 정서적 교감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예상하지 않았던 장면들을 마주하며 새로움, 놀라움, 재미를 경험한다. 주목할 점은 가족 숲 체험의 장기 참여자는 단기 참여자에 비해 씨앗, 곤충, 새, 진흙 등의 자연을 오감으로 느껴보는 체험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일상에서 무심하게 지나쳤던 다양한 생명체를 가까이에서 몸소 체험하며 그들에게 신비함, 아름다움, 소중함, 마음의 정화 등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발적으로 이색적인 체험을 만들어 나간다.

숲이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의미는 유아, 부모, 가족 전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유아에게 숲은 풍부한 오감 체험을 제공하며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숲에서 유아들은 책에서 보던 것들이 실제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깨닫고, 다양한 생명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유아의 눈높이에 적절한 자연 체험 활동과 반응을 제공하는 유아숲지도사의 역할은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를 더욱 고취시킨다. 또한 유아숲체험원은 자연적이고도 개방적인 공간에 유아들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놀이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모래, 돌, 풀, 나무 등 비구조화된 놀잇감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 유아들이 실내에서 제약받았던 움직임의 욕구를 자유롭게 누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 참여자들에게 숲은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장소로 의미가 있다. 유아 참여자들은 숲에서 비슷한 또래의 유아들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숲놀이터에서 같이 어울려 놀면서 사회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획득한다.

가족 숲 체험이 부모 참여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자연친화적인 태도의 함양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 관계에 대한 자각, 그리고 부모로서 양육효능감의 향상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의 일환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보호자로 참여했지만, 업무나 육아 등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자연을 관찰하며 자연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이 생겼고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또한 유아숲지도사로부터 야자매트의 시공 이유, 식수의 효과, 병충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과 인간의 상생 관계를 깨닫는다. 부모 참여자들은 숲 체험 과정에서 자녀가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육효능감을 느낀다. 그들은 숲에서 자녀를 자세히 관찰하고,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며, 놀이를 지원하고, 공동 놀이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숲에서는 부모 참여자 중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 역할이 적극적으로 실행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전체에게 숲은 가족 “공통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개로서 의미가 있었다. 연구 참여 가족들은 숲 체험 과정과 숲 체험이 종료된 이후, 가족 구성원들과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더욱 화목한 가정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가족 숲 체험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는 가족이 다시금 숲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새로운 동기가 되어 개인의 숲 경험을 심화시키는 선순환을 나타내었고, 유아기 자녀를 기르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추천을 통해 자발적으로 숲 체험의 참여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그림 14).

종합하면, 가족 숲 체험은 부모 참여자의 위 세대부터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대하고 즐기는 태도와 관련된 ‘문화 전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가족 숲 체험은 현재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세대가 자연을 찾고 즐기고자 하는 동기의 근원이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그림 15).

제 2 절 논의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동반 가족 숲 체험은 부모-자녀 세대 간 문화 전달의 의미를 갖는다. 유아는 연령적 특성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심리적·물리적 환경 구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유아기 동안 습득해야 할 지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학습 경험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부모 참여자들의 유년 시절의 긍정적인 자연 경험과 그러한 경험들을 가능하도록 지원해 준 부모에 대한 감사함은 가족 숲 체험 동기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 참여자들이 과거에 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경험적 자원을 부모가 된 현재 아래 세대로 다시 전달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숲 체험 과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같이 자연을 느끼고 자연을 즐기며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유아와 부모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족이 자연에서 걷고, 자연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삶을 지속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행동은 세대 간 중요한 문화적 관습으로 인간이 자연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연구(Ananda Marin & Megan Bang, 2018)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숲은 부모-유아 참여자 간의 문화 계승의 장소로 기능하며,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훗날 세대 간의 자연 친화적인 문화 전달을 촉발하는 동기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유아 자녀를 동반한 가족 숲 체험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생애주기에서 요구하는 발달과업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 숲 체험을 통해 유아 참여자는 사회성이 발달하고 부모 참여자는 양육효능감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숲 체험 과정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나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는 발달이론(Havighurst, 1948; Erikson, 1993)에서 주장하는 유아 단계의 발달과업이며, 오감 체험과 놀이는 유아의 발달과업의 성취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부모가 숲 체험 과정에서 느끼는 양육효능감 역시 성인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인 육아 능력과 생산성(Erikson, 1993)을 촉진하는 심리적 요소이다. 양육효능감이란 부모의 역할을 유능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신념의 정도를 의미하는데(Teti & Gelfand, 1991), 양육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조절 능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Jones & Prinz, 2005). 특히 추가 연구결과로 제시한 숲에서의 아버지와 자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숲 체험 과정에 반드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에 따라 자녀양육이 여성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남성들도 같이 분담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고(김경화, 2013), 남성들도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정체성을 갖고 자녀 양육에 가치를 두는 현실(Pleck, 2012; 이은실과 최혜영, 2009)에서 바람직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 참여자들은 숲이라는 공간 특성상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놀이 지원자나 공동 놀이자로 참여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유능하게 수행한다.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의 가치를 논하는 '관계적 미덕'은 도구적으로 훌륭하고 본질적으로 가치있는 친밀한 관계의 효과적인 발전과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이 덕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Um, 2021), 부모의 노력과 인내를 수반하는 양육효능감의 향상은 부모와 유아기 자녀 사이에 관계적 미덕이 발휘되어 상호 간에 긍정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추론한다.

셋째, 유아를 포함한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지역의 숲과 유아숲체험원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현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면서 아울러 유아를 포함한 미래세대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곳이다. 세대 간의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윤리학의 관점에서 자연자원을 공유하는 인류에는 미래세대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지금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보다 앞서 자연자원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미래세대의 이익을 헤아리지 않고 이를 마음대로 써버릴 수 있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김현섭, 2013). 나아가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그들에게 특정한 재화나 자원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가졌던 기회가 미래세대에게도 동등하고 공정하게 주어짐을 의미한다(Joseph, 2013). 숲은 뚜렷한 관리 주체가 있고 사람들의 이용이 많을수록 생태 및 사회·경제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며 특히 숲의 기능에 대한 주민들의 가치 평가는 숲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권덕규와 윤여창, 2012). 또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놀이터보다 친자연적인 원료를 사용해 창의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유아숲체험원의 놀이시설은 유아의 전인발달을 촉진하고 유아-유아, 유아-부모, 유아-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한다. 더불어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숲지도사에 의해 운영되는 숲 체험 프로그램은 유아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숲

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윤순진(2016)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지역 내 행위자들의 삶에 보다 밀착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완화와 적응 노력에 나설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아숲체험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확대를 위한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지역 주민들이 숲의 내재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생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취약계층 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부모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학력 및 사회적 지위가 높게 나타난 현상은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과 자녀의 교육 여건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정에게 있어 숲 체험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아는 놀이 과정에서 새로 획득한 개념이나 기술을 연습하고 공고화하며(Piaget, 1963), 놀이의 특성인 과정지향성, 비실제성, 유연성 등은 유아의 행동 선택 사항을 증가시켜 문제해결 능력에 기여한다(Bruner, 1972).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페터 헤프너 박사가 5년 동안 취학 전 숲 교육을 경험한 아이들과 비교집단의 아이들을 연구한 결과, 숲 교육을 경험한 아이들이 동기부여-인내력-집중력, 사회성, 수업 참여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특히 수업 참여도 영역에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며 사회 및 자연 과목에서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희정, 201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유아기의 놀이와 자연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교육이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보다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취약계층은 이러한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정보를 얻더라도 정보 내용에 대한 민감성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중상위층 부모들에게 편중된 정보 습득이 아닌,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취약계층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취약계층 부모들이 경제 활동, 거주 지역 등의

생활 여건으로 인해 부모교육을 수강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김동훈, 2018)나 온라인 부모교육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제한적인 정보력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고, 가족 숲 체험 참여에 대한 동기와 접근성이 높아지며, 지자체에서는 부모교육의 내용과 연계성이 높은 유아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를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가족 숲 체험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부모 참여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1:1 심층 면접이 진행되었다. 면접은 참여자로부터 과거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는 있지만 연구자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알고 묘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연구자가 가족 숲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관찰자'로 '참여'하여 숲 교육 현장의 실제를 깊이 파악하고 유아-부모-유아숲지도사 삼자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이해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둘째, 이 연구의 부모 참여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상위 계층으로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모든 유아의 부모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도 요청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 연구에서 자연을 즐기는 문화가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결론은 숲 체험에 있어서 자기 주도 학습과 개인의 경험의 재구성을 강조하는 현대의 이론들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가족 숲 체험의 의미로 포착한 가치들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아와 부모의 자연친화적 태도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숲 체험 프로그램에 입문한 이후 일련의 단계를 거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나타나는지, 그 경험은 어떤 의미를 수반하며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유아와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숲 체험의 교육적 의미를 탐구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숲 체험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향상, 가족 간의 유대감 증진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가족 숲 체험이 자연친화적인 문화의 계승을 촉발하는 동기의 근원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지자체의 유아와 부모의 생태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개입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영식(2018). 유아의 숲체험 활동이 부모와 자녀의 상호 관계 및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2), 413-421.

강영식, 김용숙(2012). 생명존중 숲 체험활동이 유아의 환경 감수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7(2), 1-18.

곽노의(2009). 2010학년도 동계유아교육원 직무연수. 유치원 자체평가의 기획 및 실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곽노의(2010). 자연주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탐색. 한국초등교육, 20(2), 173-196.

곽노의(2011). 숲유치원에서의 놀이와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15(3), 1-23.

곽노의, 이신영(2015). 누리과정과 연계한 숲체험 교육활동. 서울: 창지사.

권덕규, 윤여창(2012). 하천변 마을숲의 지속가능성 고찰 -4개 시군(남원, 산청, 하동, 함양)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임학회, 2012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 325-326.

김경화(2013).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녀취업자의 일/가족 갈등 인식 : 성별과 관련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5(4), 60-90.

김동훈(2018). 출산 · 육아 가치관 재조명을 통한 육아문화 개선 방안. 육아정책포럼, 56, 6-18.

김영옥(2009). 부모교육. 서울: 공동체.

김윤정, 권순희(2015).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양상 분석. 청람어문교육, 53, 183-230.

김은숙(2013a). 숲에서의 교육이 유아의 친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8(4), 205-229.

김은숙(2013b). 숲에서의 놀이가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7(2), 23-42.

김은주, 임홍남(2013). 유아교육 연구에서의 ‘자연’과 ‘생태’에 대한 의미 고찰. 교사교육연구, 52(1), 1-20.

김일방(2017). 데카르트(Rene Descartes)의 자연관: 그 형성배경과 공과 그리고 그 대안. 한국환경철학회, 23, 101-133.

김현섭(2013). 세대윤리: 세대 간 정의의 의무는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처음 읽는 윤리학』p.613-632. 경기: 동녘.

김혜영, 박소연(2019). 30~40대 여성의 도시 숲 경험과 긍정심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3(2), 37-47.

나를 만나는 숲(2008). 숲속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산림청.

노자(2019). 도덕경. 소준섭 역. 서울: 현대지성.

박복매, 문혁준(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10), 11-22.

박숙현, 박봉수(2018). 도시숲을 활용한 주말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가족응집력과 가족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및 부모 만족도.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2(4), 49-58.

박이문(2001). 동서양 자연관과 문학. 문학동네, 8(2). 1-10.

산림청(2013). 산림복지종합계획. 산림청.

산림청(2014).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매뉴얼. 산림청.

산림청(2018).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년). 산림청.

산림청(2021). 2021년 유아숲체험원 현황. 산림청.

손병욱 (2001). 지향처(志向處) 세우기(:立志) 교육의 인성교육(人性敎育)적 의의. 윤리교육연구, 1, 85-106.

송순옥 (2018). 실천·체험 중심의 환경교육활동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 및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력. 아동교육 , 27(2), 47-64.

신용주, 김혜수(2003). 안드라고지의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부모효능감 : 장애자녀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새로운 모형. 한국성인교육학회, 6(1), 59-84.

신은수, 김은정, 유영의, 박현경, 백경순(2010). 놀이와 유아교육. 서울:학지사.

신지연, 이신영, 정민정, 이소영(2016). 한국형 숲유치원 교육과정 모형개발

을 위한 기초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0(4), 549-582.
안선희, 김선영(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어은주(1996). 한국 도시 가족이 건강성 및 관련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영희, 손화희(2019). 가족복지론. 서울: 학지사.
유승우, 채영란(2014). 숲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 및 과학적 탐구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2(4), 201-222.
윤순진(2016). 기후변화 대응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행정, 65, 16-19.
윤순진(2017). 한국의 공동자원 관리와 전통사회의 자연관. 최현・정영신・윤여일 편저.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p.157-183. 서울: 진인진.
이기숙, 정미라, 김현정(2006). 한국, 중국, 일본 유아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5), 81-98.
이문희(2015). 유아숲체험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산림청조성 유아숲체험원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석사학위논문.
이명환(2003). 독일의 숲유치원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3(4), 23-48.
이명환(2007). 독일의 숲 유치원. 서울: 교육아카데미.
이명환(2012). 독일의 숲유치원과 한국의 숲유치원 비교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16(3), 67-85)
이명환, 김은숙(2010). 녹색교육 숲유치원. 서울: 교육아카데미.
이명환, 김은숙(2011). 숲에서의 교육이 유아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0(4), 149-170.
이명환, 김은숙(2015).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숲체험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9(4), 141-158.
이문희(2015). 유아숲체험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산림청조성 유아숲체험원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석사학위논문.
이미나, 김영애(2016). 유아 숲 놀이 프로그램 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6(4), 271-278.
이성덕, 김형균(2010). 환경감수성의 이론적 탐색. 공주교대논총, 47(2),

65-88.
이숙현·권영인(2009).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 일-가족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1-28.
이신영(2015). 스웨덴 숲유치원의 운영 현황과 국내 숲유치원의 발전 방안. 어린이미디어연구, 14(4), 73-93.
이영, 김인호, 김태경, 남상준, 남원희, 류창희, 박병권, 양미란(2000).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환경부.
이영환(201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비교. 아동과 권리, 16(3), 471-495.
이원숙(2012). 가족복지론. 서울: 학지사.
이은실, 최혜영(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양육 참여도 및 배우자의 지지. 대한가정학회지, 47(5), 13-22.
이인원(2014). 숲체험 활동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6), 83-103.
이주영(2016). 산림체험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노출된 미취학아동의 정서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과학회, 25(9), 1323-1328.
임상희, 남상준(2004).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체험과 환경적 감수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3), 497-507.
장미정(2011). 환경운동가의 정체성 변화를 통해 본 환경교육운동가 형성과정: 환경교육운동가의 기억과 구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희정(2016). 숲유치원. 서울: 호미.
조용환(1999). 질적연구: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정병훈 (2001). 프랜시스 베이컨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 철학, 69, 307-315.
정선영(2015). 왜 심층생태주의인가: 생태비평의 세 가지 근본주의 생태론 고찰. 인문사회 21, 6(3), 377-392.
정옥분(2018).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채경선, 황현주(201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효학연구, 20, 159-190.
최돈형(2005). 환경교육학 입문. 서울: 원미사.

최석진, 김인호, 남효창, 박선미, 심현민, 이소영. (2001).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환경교육학회 연구보고서, 1-470.

최석진, 최경희, 김용근, 김이성(2014). 환경교육론. 서울:교육과학사.

한유미(2010). 숲유치원의 해외 동향 및 국내 도입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60, 1-18.

한지숙, 김영국, 홍수장 (2014). 숲 여행 참여 전후 스트레스 반응 및 인지된 건강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8(3), 21-31.

허영림(2006).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6(1), 97-116.

허자연, 문혁준(2019).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부모-자녀 상호작용,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 28(3), 203-220.

현성용, 김교헌, 김미리혜, 김아영, 김현택, 박동건, 성한기, 유태용, 윤병수, 이봉건, 이순묵, 이영호, 이재호, 이주일, 진영선, 채규만, 한광희, 황상민(2009). 현대 심리학 이해(2판). 서울: 학지사.

환경부(2015).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16-2020). 환경부.

환경부(2020).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 환경부.

Amanda Kane & Judy Kane (2011). Waldkindergarten in Germany. *Green Teacher(Toronto), 94*, 16-19.

Ananda Marin & Megan Bang (2018). “Look It, This is how You Know:” Family Forest Walks as a Context for Knowledge-Building About the Natural World, *Cognition and Instruction, 36*(2), 89-118.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변창진·김경린 역(2003). 사회적 학습이론. 파주: 한국학술정보]

Baruch, G. K., & Barnett, R. C. (1986).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and children’s sex-rol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57*(5), 1210-1223.

Belsky, J. (2001). Emanuel Miller Lecture: Developmental risks (still) associated with early child care.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2*(7), 845-859.

Bookchin, M. (1994). *The Philosophy of Social Ecolog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문순홍 역(1997). 사회생태론의 철학. 서울: 솔]

Borge, A. I. H., Nordhagen, R., & Lie, K. K. (2003). Children in the environment. *The history of the family, 8*(4), 605-618.

Bruner, J. (1972). The nature and uses of immaturity. *American Psychologist, 27*, 687-708.

Burgess, E. W. & Locke, H. J. (1953).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Chawla, L. (1988). Children's concern for the natural environment. *Childhood Education, 58*(5), 258-260.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1), 13-24.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Creswell, J. W. (2009).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3rd. [김영숙, 류성림, 박판우, 성용구, 성장환, 유승희, 임남숙, 임청환, 정종진, 허재복 역(2011). 연구방법 질적, 양적 및 혼하적 연구의 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Cronon, W. (1996). The trouble with wilderness: or, getting back to the wrong nature. *Environmental History, 1*(1), 7-28.

Damagio, A. (1994). *Descartes' error :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김린 역(1999). 데카르트의 오류. 서울: 중앙문화사]

Dreikurs, R. (1958). *The challenge of parenthood.* N.Y. : Hawthorn.

Elliot Aronson, Timothy D. Wilson, Samuel R. Sommers (2019). *Social Psychology(10th Edition)*. NY: Pearson.

Erikson E. H. (1993). *Childhood and Society*. Paperback.

Ginott, H. G. (1968). *Between parent and children : New solutions to old problems.* N.Y. : Macmillan.

Kelly, J. R. (1983). Leisure-family Research: Old and New Issue. *World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35*(3), 5-9

Flouri, E. (2004). Subjective well-being in midlife: The role of involvement of and closeness to parents in childhood.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4), 335-358.

Flouri, E. & Buchanan, A. (2003).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n's later mental health. *Journal of adolescence, 26*(1), 63-78.

Fröbel, F. W. A. (1826). *Die Menschenerziehung*. [이원영, 방인옥 역(2005). 인간의 교육. 경기: 양서원]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Hartman, A., & Laird, J. (1988).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NY: The Free Press.

Havighurst, R. J. (1948).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 Longmans.

Irving Seidman (2007).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3rd.* [박혜준, 이승연 역(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서울: 학지사]

Jones, T., & Prinz, R.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3), 341-363.

Joseph, R. D. (2013). *Environmental Ethics. 5th Edition.* [김명식, 김완구 역 (2017). 서울: 연암서가]

Kahn, P. H., Severson, R. L. & Ruckert, J. H. (2009). The human relation with nature and technological natur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1), 37-42.

Krogh, S. L. (1995). *The integrated early childhood curriculum*. New York : McGraw-Hill, Inc.

Kuball Y. E. (1995). Goodbye ditto: A journey from skill-based teaching to

developmentally appropriate language education in a bilingual kindergarten. *Young Children, 50*(2), 6-14.

Louv, R. (2008). *Last child in the woods : saving our children from nature-deficit disorder*. [김주희, 김종인 역(2017).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 서울: 즐거운상상]

Lucas, A, M. (1972).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education: conceptual issues and curriculum implications". Ph.D.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Moore, R. C. (1997). The Need for Nature: A Childhood Right. *Social Justice, 24*(3), 203.

Palmer, J. (1998).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Theory, Practice, Progress and Promise*. Routledge.

Patton, M. Q.(1990).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Sage.

Pestalozzi, J. H. (1781). *Die Abendstunde eines Einsiedlers.* [최종묵 역(1994). 은자의 황혼. 서울: 민성사]

Piaget, J. (1963).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Norton.

Pleck, J. H. (2012). Integrating Father Involvement in Parenting Research.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2*(2-3), 243-253.

Pressley, M., & Levin, J. R. (1980). The development of mental imagery retrieval. *Child Development, 51*, 558-560.

Rachel L. Carson (1956). *The Sense of Wonder.* [표정훈 역(2012). 센스 오브 원더. 서울: 에코리브르]

Rohner, R. P., & Veneziano, R. A. (2001). The importance of father love: History and contemporary evidenc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82-405.

Rousseau, J. J. (1762). *Emile.* [김평옥 역(2020). 에밀. 서울: 집문당]

Rudman L. A., Phelan J. E., Heppen J. B. (2007). Developmental Sources of Implicit Attitud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12), 1700-1713.

Salem, D. A., Zimmerman, M. A., & Notaro, P. C. (1998). Effects of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 and father involvement on psychosocial

outcome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Family Relations, 47*(4), 331-341.

Sebba, R. (1991). The landscapes of childhood the reflection of childhood's environment in adult memories and in children's attitudes. *Environment and behavior, 23*(4), 395-422.

Singer, J. L., & Singer, D. G. (1983). Psychologists look at television: Cognitive, developmental, personality, and social policy impl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38*(7), 826-834.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Um, Sungwoo (2021). What is a relational virtue?. *Philosophical studies, 178*(1), 95-111.

웹사이트

국립중앙과학관. https://www.science.go.kr

산림청. https://www.forest.go.kr

서울특별시공공서비스예약. https://yeyak.seoul.go.kr

성남산림복지. https://epark.seongnam.go.kr:10010/forest

성남시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sntjdska123

부 록

<부록 1> 연구 진행 일정

기간	연구 진행 내용
2020년 봄학기-	-유아 동반 가족 대상 숲 체험 관련 이론적 탐색
2021.03.01.-2021.03.31.	-연구 주제 선정 -이론적 탐색
2021.04.01.-2021.04.30.	-이론적 탐색 -인터뷰 가이드 작성 -파일럿 인터뷰
2021.05.01.-2021.09.30.	-연구 참여자 모집 -현장 답사 4회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 진행 -전사 및 전사 내용 부분 분석
2021.10.10.-2021.10.31.	-전체 자료 분석(코딩) 및 해석 -분석 내용 관련 이론 탐색 -결론 도출
2021.11.01.-	-분석 내용 관련 이론 탐색 -연구 참여자 대상 추가 면접 요청 -논문 전체 마무리

<부록 2> 심층 면접 실행 정보

가 족 구 분	이 름 (가명)	날 짜	시 간	장 소	비 고
A	정소라	2021.05.25.	10:40-12:10	경기 Y시 카페	
		2021.06.06.	11:00-12:00	판교공원	
	한수연	2021.06.06.	10:10-10:35	판교유아숲체험원	
		2021.06.06.	12:00-12:30	판교공원	
B	이선호	2021.05.27.	19:30-20:10	경기 S시 카페	
		2021.06.03.	19:30-20:10	온라인 면접	*zoom 활용
	이준우	2021.05.30.	16:10-16:50	화랑공원	
		2021.06.06.	13:30-14:10	판교공원	
C	채나현	2021.09.10.	17:30-16:30	온라인 면접	*zoom 활용
		2021.10.01.	12:30-13:30	온라인 면접	*zoom 활용
	김하은	2021.09.24.	11:00-12:20	경기 A시 아파트 놀이터	
D	김다은	2021.09.08.	13:30-14:30	온라인 면접	*zoom 활용
		2021.10.05.	13:30-14:40	온라인 면접	*zoom 활용
	민우현	2021.09.11.	10:00-11:20	한강공원	*쌍둥이 형제
	민수현				

<부록 3> 심층 면접 전사기록 사례

참여자	김다은	심층 면접 회차	1차
자 녀	민우현, 민수현(쌍둥이)	숲 체험 프로그램 참여 횟수	15회 이상
장소	온라인(ZOOM)	면접 일시	2021.09.08. 13:30-14:30
인터뷰 전사 내용	연구자: 그럼 참여 횟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참여자: 대략적으로 10번은 넘고 20번은 안 될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15번 정도 참여해 보신 것 같으세요? 참여자: 네. 열다섯 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연구자: 네. 어머님께서는 여가시간에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편인가요? 참여자: 네네. 주말에는 항상 아이들이랑 어디라도 가려고 해요. 네, 집에 있진 않아요. 연구자: 그럼 많이 놀아주시는 엄마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참여자: (웃음)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 많이 이용하고요. 가족 숲 프로그램 말고도 박물관, 미술관 같은데 예약을 해 놓고, 주말에 가족이랑 뭐할지 한 달 전 쯤에는 계획을 해 놓아요. 연구자: 한 달 전이요? 참여자: 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즐거워서요. 제가 일을 하니까 '주말에 우리 애들한테 뭘 해주지? 주말에 우리 애들이랑 어디 재밌는 데를 가보지?' 이런 생각으로 주중을 버텨요. 그러니까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를 열심히 들어가는 거고, 거기 숲 체험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많이 신청하는 거고요. 연구자: 그렇군요. 참여자: 아. (웃음) 제가 좋아서 하는 거죠. 시켜서 하는 거면 못했을 것 같아요. 연구자: 보통 아들 쌍둥이라고 하면 힘들기도 하실 텐데, 숲에 가시면 어떠세요? 참여자: 몸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만 있으면.. 약간 자책감이 들어요. 스스로를 위한 것도 없고, 아이들을 위한		

	것도 없으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병적이라는 생각도 하는데. 주말에 이렇게 사는 게 삶의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중을 버틸 수 있고,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줘야 내가 엄마로서 뭔가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연구자: 어머님 자체도 좋으신데 아이들에게도 좋으니까 기꺼이 하시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참여자: 네. 맞아요. 연구자: 어머님도 남편분처럼 유년시절에 산이나 바다 강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는지 궁금해요. 참여자: 저는 남편처럼 부모님이 농사를 짓지는 않으셨는데, 중학교 때까지 농촌에 살았어요. 집 앞에 논이 있었고, 저희 부모님 직업은 농업이 아니었지만 친구들의 부모님은 농사 짓고 사는 분들도 많았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자연에서 놀았던 기억이 많긴 해요. 집 옆에 되게 넓은 잔디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메뚜기같은 곤충 잡아서.. (잠시 구술을 멈추었다가 웃음) 어렸을 때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웃음) 그런 메뚜기 먹은 적도 있고. 집 앞에 연못이 있어서 연못 주변에서 친구들끼리 비밀 기지를 만들어서 놀고요. 어른들 몰래 연못에 징검다리 건너가서 놀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교육열이 좀 높으셔서 저를 놀게만 두진 않으셔서 놀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시골 살면서 진짜 많이 놀았고요. 저는 하루종일 계속 놀진 않았는데, 엄마가 TV는 못 보게 하셨지만 밖에서 노는 건, 자연에서 많이 놀게 해주셨어요. (중략) 연구자: 그렇군요.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그렇게 동식물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여자: 제가 그렇게 키우려고 해서 그렇게 키운 건 아닌데 애가 관심이 많은 걸 제가 허용한 거죠. 애가 좋아한 거를 제가 따라가 준거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보기도 했는데. 서울

	에 살면서 시골 감성이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친구는 축구를 잘하고 보드게임 잘 하는 것처럼 자기만의 특성화된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자연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책 내용이랑 연결이 되기도 하잖아요. 자연물을 전혀 못 만지는 것보다는 잘 만지고 즐길 줄 아는 게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자: 네. 그렇군요. 참여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희 가족이 캠핑을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해서요. 또 얼마 전에는 어메이징파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메인이 과학관 미술관 같은 거에요. 근데 저희 애들은 과학관에서 잠깐 놀고 그 옆에 물 흘러 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도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얘네는 진짜 내가 돈 내고 티켓팅할 필요가 없구나. 얘네는 자연에 풀어 놓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구나 하는 걸 다시 느꼈어요. 제 친구들이 놀릴 정도로요. 캠핑은, 캠핑도 공공예약서비스로 예약하고 갔거든요. 사설 체험장은 도자기 체험, 만들기 체험 이런 돈 쓰는 체험이 많아요. 애들이 심심할 틈이 없는 그런 거요. 저는 아직 공공시설만 다니는데요. 저희 애들은 아무 시설이 없어도 흙이랑 모래, 벌레만 있어도 그냥 노는 거예요. 돌멩이 연결해서 만들어 놀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들어서 놀기 때문에, 우리 애들 특징이 프로그램이 없어도 잘 노는구나. 이런 성향도 좋구나, 장점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자: 자연을 좋아하는 성향에 장점이 많다는 걸 느끼셨군요. 참여자: 네. (웃음) 자신의 관심 영역이 뚜렷한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bstract

Educational understanding of the motivation and experience of forest experienc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 Focusing on Early Childhood Forest Experience Ground

Hyejin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otivation and the elements of the meaningful forest experiences for family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in the forest experience program for families with children, and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educational meaning of family forest experiences to family member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adopted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parent participants, and for a deeper understanding, interviews with child participants and field surveys on Early Childhood Forest Experience Ground were conducted.

In this paper, parent participant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family forest experience program as their positive natural experiences in childhood and the current educational view about their children acted as an intrinsic motivation. The elements of the forest experience content that parent participants evaluate as meaningful in the family forest experience process are activities that involve high-quality interac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unusual natural experiences that are not often experienced in daily life, or activities that reflect both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find out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family forest experience, the categories were divided into child participants, parent participants, and entire family. Child participants improved their nature-friendly attitudes, enjoyed freedom and play, increased sociality, parent participants increased their nature-friendly attitudes, realized the coexistenc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and improved parenting self-efficacy. Through the family forest experience, family members communicated with common experiences and developed into a more harmonious family, and the positive evaluation of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became a new motivation for families to apply for the forest experience program again.

Taken together, the forest experience for families with children was of educational significance as a phenomenon of promoting the achievement of developmental tasks required by each family member's life cycle, improving the nature-friendly attitude of parents and children, and delivering nature-preferred cultures between

generations. Therefore, the family forest experience will not only create a healthy growth and culture of the family, but will also serve as the source of motivation for future generations to find and enjoy nature. Accordingly, the researcher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ight to play in beautiful nature for future generations, including children, and suggested measures to revitalize family forest experiences with children.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actively discuss to continuously preserve and expand local forests and Early Childhood Forest Experience Ground. A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evelop and provide ecological programs that allow local residents to know the intrinsic value of the forest. In addition, parent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parents of low-income families who are vulnerable to the conditions of their children's education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 This solves the problem of limited information of the vulnerable classes and increases the motivation and accessibility of participation in family forest experiences.

keywords : **forest experience program, family forest experience, Early childhood forest experience ground, Environmental education, future generation, qualitative case study**

Student Number : 2020-27973